

제목: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청구 문제있다.

주인들이 아파트관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 관리비와 관리비외수입 계정에서 지난해동안 발생한 엘리베이터 보수비총액 지출이 257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27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지급된 비용이니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놈의 거성엘리베이터와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매달 적지않은 유지비 꼬박 나가고 세 부모수내역 보면 15%가 전체 수리내역에 곱한 비용까지 더해져 수리비는 수리비(1년동안 2570만원 부품비와 노임비)대로 다 챙겨가고 승강기유지비(매달 270만원 가량)는 유지비대로 받아가니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세부 수리 부품을 보면 잘 고장나지 않는 PCB기판(회로기판)도 꽤 보이고 308동 지하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왜 자꾸 고장이 잦은지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많았을 것인데 제대로 운행도 못하고... 거기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상주한다는 직원은 어디갔는지 안보이고 전화해도 늦장을 부리며 몇번을 전화해야 고쳐주니 그럴것 같으면 아예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생겼을때 업체에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지은지 5년도 안된 새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고장이 잦은것도 이해가 안되고 엘리베이터 제어판 열쇠를 관리사무소와 거성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수리청구를 끝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안전검사할때나 보수직원들이 출입할때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등 제 3자가 동행하여 외부인사가 엘리베이터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새벽이나 아침같은 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관련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엘리베이터를 출입하여 손을 대니 멀쩡한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동작할리 없습니다.(물론 안전검사만 할 순수한 의도였다면 이런 얘기 꺼내지를 않았겠죠) 뭐든 가만히 잘 동작하던 것도 건드릴수록 고장이 나기 쉬운것이 기계와 전기제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소에 가보니 이번년도 들어 수리비 청구된 것이 또 칠팔백이 넘었다고 조롱조로 얘기하니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박스와 상응하는 무게의 균형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전자제어장치와 롤러기계로 작동하는 내구재입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을 위한 셋팅과 조정작업만 잘해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내구재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벌써부터 수백만원이 넘는 부품들이 교체되고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수리를 받았다는 것은 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그것도 관리비외수입에서 야금야금 주민들 돈을 거금 1500만원이나 넘게 한꺼번에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엘리베이터보수비 청구에 대한 대비책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루 빨리 마련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영성한 엘리베이터 관리구조 속에 계속 주민들이 방치될 이유가 없으며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1년에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반드시 짚고넘어가야할 사안입니다. 관리소 직원이 말한대로 제가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민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아파트 관리비외수입은 어린이집임대료, 관리비, 각종 광고수익, 테니스장사용료, 재활용수익금, 현금지급기임대료, 통신키트임대료 등이 모인 우리 공동의 수입입니다. 이런 소중한 돈을 소방설비다 엘리베이터수리다 안보이는 고장으로 인해 수천만을 소중한 데에 쓰지 못하고 그냥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관리해서 올바르게 쓰여졌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입주자대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5년이 다 되도록 베란다나 외벽 유리창청소를
1 페이지

언제 돈들여 대대적으로 청소한적 있는지요. 이런 돈으로 더러워진 유리창 청소하면
오죽이나 좋을것을 쓸데없는 데에다 돈을 낭비하고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조차 모르
는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추신>

각종 수선유지비는 현재 한꺼번에 부과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나 기타항목에서 감가상각
(가격을 깎아 매달 나누어 갚아가는)하는 형식으로 부과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들은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찾아먹어야 할 돈들이 새지는 않는
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리비내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내용과
각종 물품대장과 계약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목: 고쳐지지 않는 몇가지 사항과 요청사항...

이번에 우리아파트가 업체와 새로 계약하면서 청소비가 오르고 위탁관리수수료가 부과
되기 시작했고 경비비가 얼마전에 잠깐 오르고 부가세가 다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말로는 청소비 청구된 것이 계약서와 틀리게 더 청구됐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왜 동대표들은 이런 내용들에 관한 회의를 비밀리에 열고 자기들끼리 회의날짜도 맘대
로 변경해 버리고 주민들에게 알리기를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세간에는
관리규약에 대표회의 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큰 힘을 얻
고 있는 마당에 현재 이사로 계시는 3기 이정석 전회장님은 왜 그토록 소극적인지 모
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의 지금까지 동대표 활동을 지켜보고 이번에 관리규약 검토의견에 말해
봤자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아예 그 애긴 이곳에 꺼내지도 않았는데
요 정말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는데 그분도 역시 말의 선후가 틀리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와 동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대표회의 일정 철저히 공지
해 주시고요 회의록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제가 언제 동대표회의 참석 못하게 되면
회의록 보러 관리소에 찾아가겠습니다. 다 관리규약에 있는 내용이라느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청소비가 작년부터 조금씩 올랐는데, 이전부터 계단 청소가 할때만 깨
끗하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검은때가 조금씩 생기는데 이것 확실하게 말아서 청소
해 주세요. 저도 계단청소에 어떤 화학제를 쓰지는 몰라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
니다. 잘 좀 하세요.

또 한가지 우리아파트관리소 수입지출계좌관리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선충당금과 관리비외수입, 관리비선수금 및 관리비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에 관해 별
도 계좌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론 관리비외수입 상에 표시된 이자수입은
지극히 적은 금액이 표시돼왔던 걸로 아는데요 앞서 말한 항목의 모든 정기적 이자수
입에 대한 별도계좌를 만들어 관리비내역서상에 그 금액을 정리해 표시해 주실것을 요
청합니다. 지금까지 5년 가까이 관리비를 관리하면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았을 걸로
짐작되는데 그 금액을 관리비계좌에 놔두지 말고 별도 계좌에 그때그때 모아서 입금해
그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달간 지내오면서 관리비내역서를 우편함에서 가져온 기억이 없습니
다. 몇달간 제가 직접 관리소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관리소가 관리비내역서 전달
에 소극적이라는 것인데 매달 12만원 쓰며 인쇄해가지고 왜 전달하지 않고 버리는 겁
니까?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성실하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 저것도 아니구 한마디로 무슨 전략입니까? 주민들은 아예 관리비에 대해선 몰
라도 되고 동대표와 관리소에게만 맡기라는 것입니까? 참 ^^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라
는 격이죠. _ _

동대표들에게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며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비외수입의
2 페이지

잔고가 조금 있으니까, 그돈으로 자꾸 입주민들 생활과 무관한데다 돈 쓸 궁리하지 말고 제가 전에 말한 환풍기구조결함 손보는데나 유리청소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곳에 좀 돈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관리소직원이 와서 환풍구를 열어보더니 그냥 나사조이고 그냥 가는데 그럴것 같으면 왜 집까지 찾아왔는지.. 왔다는 데에 의의를 두려고 하는 모양 같아서 보기에 안좋았습니다.

그럼...

제목: 택시비, 버스비 올려도 너무 올린다.

며칠전 오랜만에 옛적 친구가 집에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날은 우리동네 아파트 동대표회의도 있는 날이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동대표들 때문에 1차로 기분을 망쳤다. 방청객으로 유일하게 찾아온 주민이 심각한 현안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먼저 발언하고 가겠다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동대표들이 무슨 동대표 자격이 있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대로 따지기로 하고 그 자릴 떴다.

그 친구가 부탁한 컴퓨터 스캔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시장쪽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옛날 같이 다녔던 고등학교도 갔다오고 학교다녔던 얘기, 컴퓨터에 관련한 얘기 등 우리는 그 친구 집으로 향해 장장 5.5Km를 다시 걸으면서 내내 시간가는줄 몰랐다.

철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그 친구 집은 철학과답게 한마디로 다양한 학문세계의 보고였다. 거기서 그 친구의 노트북도 구경하고 아까 찍은 카메라폰 사진도 전송하여 편집해 보며 한마디로 동대표들에게서 망친 기분이 순식간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여러가지 학문적 토론도 하고 나의 철학세계도 얘기해 주며 몇시간을 보내고 나니 벌써 새벽 2시 반...

그 친구와의 흡족한 학문적 호기심을 교환한 나로서는 이 우주를 어렵곳이나마 다 깨달았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택시를 타기위해 다시 현실에 부딪힌 나는 또다시 치열하고 교활한 인간세계에 던저리를 던다.

아까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는데 1900원부터 시작된 미터기가 5000원을 가리킨 것이다. 예전에 한번 택시를 탔을때 3000원 남짓이었던 요금이 벌써 2000원이나 더 올랐다. 기본요금과 할증, 거리별 요금이 많이 오른 것이다. 차라리 요금을 몰랐더라면 더 속편했을 것을 난 또 이렇게 기분좋게 집에 돌아와서 2차로 기분을 망치고 말았다.

서울시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심야라고 시민들 발을 볼모로 택시요금을 터무니없이 업자들에게 올려주는 것도 모자라 버스같은 경우는 노선을 개편했다며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23% 가까이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1년도 안돼 몇번이나 1년 물가상승률의 네다섯배나 되는 요금을 올린다. 이게 시민을 위한 기관인지 버스업자들을 위한 기관인지 무척 헷갈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요금을 적정하게 매겨 버스이용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않고 일방적인 횡포를 가하며 버스수송분담률이 떨어졌다고 요란을 떠난다. -

그림을 보면 알지만 우리동네(신림동) 버스들을 살펴봤을때 노선이 그대로인(존치) 버스의 수가 전체의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단축이나 연장운행하는 버스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면서 또 똑같은 시꺼먼 매연 폭폭 내뿜으면서 필자같은 인도 애용자들을 괴롭히고 서울시내 상공을 검은 연기로 온통 뒤덮을 것이 분명하니 이정도면 800원이 정말로 아까워진다.

필자는 앞으로 건강도 생각하고 버스비, 택시비도 아낄겸 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인 도보를 적극 활용할까 생각중이다. 뭐 이것은 예전부터 죽 실천해 온 것이지만 서울시의 계속적인 만행에 나부터라도 본떼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다. 하루에 3시간 가까이를 운동에 할애하는 필자로서는 이것은 매우 손쉬운 다짐이다. ^^

제목: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통부의 신규가입정지 조치...

난 이전부터 이 뉴스를 듣고 처음에 무지 황당했다. 이동통신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월사용료를 받아내기위한 가입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정통부가 중간에서 뭐라하며 신규가입정지 조치를 내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함을 넘어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단말기값이 워낙 비싸니까 통신회사 입장에선 보조금을 써서라도 가입자를 유치하면 매달 들어오는 통신료 수입이 짝잘하므로 1년 2년 계속되면 수지타산이 충분히 되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시행하는 전략을 정통부가 나서서 규제한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지도 않은 행동이다.

오히려 소비자 측면에선 그런 정책을 장려 단말기값을 저렴하게 공급해야할 의무에 있는 정통부가 오히려 통신회사의 수익전략을 뭐라하며 나선다는 건 관료들의 대표적인 걸고 넘어가는 행정스타일의 전형이다. 괜히 통신회사의 정책을 규제해 원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고약한 심보인 것이다.

이동통신회사는 초기에 투자비용이 들어도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선 원가도 별로 들지 않는 통신 사업에선 대박의 경기인 셈이다. 핸드폰 사업의 특징이 초기 설비만 잘 투자하면 유지비용이 별로 안들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통신료 수입은 단말기 보조금을 쓰고도 남음이 있는 투자매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가 매번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따지를 걸고 나오는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계속 이같은 행동을 하다간 그 속성을 다 아는 국민들한테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제목: 쓰레기 단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요새 화제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단무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단무지는 남은 단무지를 모아서 위생처리한 다음 만들었기 때문에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의 불량식품에서 흔히 만날수 있는 비식용 재료로 들어간 음식이다.

예를 들어 튀김만 하더라도 식물성 기름을 쓰는것이 아닌 공업용 기름을 쓰게 되면 사람한테는 매우 치명적이다. 예전에 동네 한 튀김집에서 필자도 야식으로 튀김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먹고나서 아주 혼이 났던 기억이 있다. 어떤 집은 여러번 튀긴 기름을 계속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음식의 단속이 앞서 말한 만두의 경우보다 더 급하다. 이런 기름들은 체내에서 제대로 분해가 안되고 홀몬 대사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체내에 쌓인 나쁜 물질을 걸러준다는 채소역시 농약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다. 농약에 들어있는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체내에 쌓인다고 하는데 강력한 살충성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인간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바다의 오염으로 안심할 수준이 못된다. 원양어선에서 잡아온 것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는 아예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게 좋다. 현대의 가공할 산업폐수로 인해 점점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1세기엔 더더욱 환경의 클린화가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요사이 여름철에 일어나기 쉬운 식중독균에 대한 관리다. TV에

서도 가끔 학교 같은데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위생관리의 소홀이 앞서 말한 만두사건보다 더더욱 큰 문제다. 식중독 군 중에는 소시지나 기타 육류에서 빨리 번식하는 치명적인 미생물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다.

뉴스에서처럼 학교 식당에서 먹는 일반 음식을 먹고 학생들이 식중독을 일으킬 정도면 얼마나 식당위생과 재료유통의 관리를 엉망으로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은 업자들이 유통기한을 늘리고 재고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 검증되지 않은 방부제를 마구 집어넣는다는 사실이다. 소시지를 비롯해 통조림, 빵, 심지어는 압축포장에 이르기까지 방부제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앞서말한 쓰레기단무지 같은 경우보다 훨씬 중요하다. 방송의 요란 함에 이런 중요한 위생상 맹점들이 가려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제목: 전자파 장시간 노출 위험하다...

필자가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전자파 문제를 계속적으로 걱정하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자파가 인체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전자파에는 자기장과 연관이 있는 자계파와 전기장과 연관이 있는 전기파로 나눌수 있는데 자기장은 말 그대로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물질로는 좀처럼 차단시키기도 어렵고 인체에 치명적이지도 않다. 허나 전기파는 안구건조증이나 만성피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물리적으로 일정한 너비의 진폭을 가지고 있어서 금속성의 적당한 차폐기를 가리워주면(예:전자렌지) 어느정도 완벽히 차단할 수가 있다.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파가 방출돼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허나 전기파의 더 큰 문제는 장시간 노출되었을때 뇌질환의 일종인 간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신빙성 있는 임상보고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뉴스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녁시간대 일본 도쿄방송이 송출한 포켓몬스터 프로를 장시간 시청한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간질증세를 집단적으로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TV는 화면크기에 따라 일정거리를 유지하면 전자파의 강도가 상단부분 상쇄되는데 어떤 어린이들이 발작증세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궁이 가는 이야기다. 일반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1미터만 떨어져도 전자파가 상당부분 상쇄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도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다리나 몸의 한구석이 이상하게 예민해지는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간질의 초기증상이 아니라고 그 누가 속단할 수 있겠는가? 간질의 실제 임상실험에서도 정상 상태일 때의 뇌파와 간질 상태의 뇌파가 확연히 틀리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수가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독자들은 그런 적이 없는가?

전자파 차단 제품에 인증하는 규격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TCO 규격이 있는데 필자의 모니터도 그 규격을 만족하고 있다. 그 일이 몇번 있는 이후로 안심이 안돼 전면에 차폐기를 하나더 씌워놨는데 이전보다 안정된 컴퓨팅 생활에 지금은 매우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본인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항상 켜놓는데다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덩치가 큰 CRT 모니터보다는 액정 LCD가 전자파가 훨씬 덜 나온다. 차폐기를 덮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화질이 보장되므로 다음 부터는 필자도 LCD 모니터를 구입할까 생각 중이다. 뭐 전기소모량도 적고 공간활용도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것 같다. 옛날엔 LCD가 가격이 매우 비쌌지만 요샌 많이 다운이 됐다. 독자들도 한번 고

려해 보시길...

전자파의 위험, 정말 지나치기 쉬우면서도 꼼꼼이 대처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제목: 쓸모없는 경찰과 법원은 개선돼야 한다...

필자는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철학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취미로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따금 상담만 받고 후에 입금을 하지 않는 작가들이 있어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데 전화를 몇번해도 이내 끊어버리던지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같은 경우는 신분을 알아내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 먼 해외교포한테 당하는 경우는 미국이라 갈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가 두어번 정도 있었다.

그래서 경찰과 법원의 도움을 얻고자 해당관서에 전화를 했는데 맨처음 경찰서로 전화를 했을때 우리는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에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다. 법원에 전화를 하자 직원 왈, 적은 금액은 송달료도 안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이다. 미국 교포같은 경우는 30달러 받고자 송달료 몇번 교환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단다.

난 그 같은 경우를 당하고서 우리나라 경찰과 법원이 참으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이용할 일이 없어 거의 이용을 안하는 관서가 필요에 의해 도움을 청했더니 송달료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에 정말 허탈하고 정내미가 떨어지더라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경찰서와 법원이 과연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수한 공무원들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돈 아깝고 억울한 일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블로그를 이용하는 한 이용자가 자신을 가장해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못된 네티즌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서에선 해당법규가 없어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게 우리 경찰과 법원의 현주소다. 참 우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제목: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 문제있다 이윤찬 님 생각 / 2004.01.11

보통 기업들이 만들어서 수정해나가는 약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너무나 많다. 다 불공정 약관들인데 이것들의 사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번에 인터넷대란의 경우도 1인당 300원 수준의 보상도 못하겠다고 역소송을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과연 300원의 피해밖에 되지 못할까?

제목: 정부의 부동산 세율 인상에 즈음하여...

면적을 시가로 변경하면 세수가 폭증하는데 그럼 새로운 정책은 강남을 제외한 기존 주택거주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없이 정부의 세수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지금까지 세금 정책은 강남강북간 조세정책에 있어서의 불균형이었다. 즉 강남 거주자들이 최고시가의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부동산 투자)하면서도 같은 면적의 비강남거주자들보다 세금은 턱없이 적게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고 조세횡포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강남거주자들의 폭증하는 세부담을 강남 이외의 거주자들의 혜택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시가가 낮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경감시켜주어

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말해 면적에서 시가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면서 생기는 엄청난 효용을 세금의 효율조정을 통해 전국민에게 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조세형평에도 합치된 것이어서 나무랄 데 없는 조세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요사이 부동산 급등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의 가격담합인데 이들이 시가기준의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못된 행동을 할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만약 이번에 새로운 세금정책으로 강남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서도 기존 비강남 거주자들의 세금은 그것대로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면 정부가 세금만 걷으려 하고 달라진 정책으로 얻는 효용은 분배하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제안이 정책 담당자들에게 꼭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며 의견을 마친다.

제목: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해 선발하는 패러다임이 문제다.

좋은 대학을 가야 사회 나와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대학을 가기위해선 시험을 잘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선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시험을 잘보게 하기 위한 상업적 학원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고 결국 학부모들은 자식들 시험 잘보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학원에 보내게 되고....

사람들은 이미 망국적인 사교육비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정부나 기업, 행정관청에서부터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 이런 망국적인 선발방법을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현되기 마련이어서 시험이란 단순한 도구로 측정할 만큼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전인교육 전인교육 매일 떠들면 뭐하는가 그런교육이 취직하는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학교와 학원에선 쓸모없는 시험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고 직업교육은 결국 이렇게 실업문제가 터져 온국민이 방향과 좌절감에 빠진 지금에서야 다시금 새로 시작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_ _

그러나 여태까지도 사회나 학교에서는 정신을 못차려서 선생이나 교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두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런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서 수중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짓밟고 사장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하다. 대학입학시험에서부터 그런 선발방식을 강요하고 결국 그들이 진출해야할 사회, 직장에서도 그런 방식을 요구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을 우리모두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도덕적 가치와 학생의 소질, 취미, 장점과 단점을 보듬어 그야말로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얼마전 지방의 어느 고등학생이 사회를 비판해 투신자살한 사건은 단순한 남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젊은 학생 모두가 고민하는 비애와 고충들이다. 내 자식은 그럴 일 없겠지 하며 자위하기 보다 그런 불합리한 패러다임들을 내 머리에서 개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 문제는 언제든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제목: 누군가는 소유하게될 부동산, 최선의 보유세 정책은...

내가 누차 보유세에 있어 강조한 점이 실수요자를 위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종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왜냐하면 1가구 다주택자들은 소유와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세금을 종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런 관점에서 보유세 인상이 시도돼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을 급매물로 시장에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매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부동산 업자를 비롯한 일부 악덕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싹쓸이 매집한 것을 볼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해서 시장의 매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집 여러채를 소유해도 세금이 적으니 그들은 계속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고 그렇게 집값이 오를 기회만 엿보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담합을 조장하기도 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상실시키기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 버렸다.

이런 시점에서 이젠 정부가 강력한 판단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 괜히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들, 국민모두에게 '세수확대'라는 오해를 사지 말고 아까 말한 다주택자들의 강력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 부과 체계도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채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개꾸로이지 않는가? 또 현재 양도세 취득세 부과 규모도 상당히 크고 일명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도 반기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들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보유세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책 입안자들에게서도 본인의 뜻을 잘 이해했으리란 생각이 들며 이 정도 선에서 토론의 의견을 마칠까 한다.

제목: 정동영, 김근태, 정동채 의원 장관 겸직 문제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된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다고 한다. 어떻게 요사이같은 권력집중을 경계시키는 분권화 풍토에서 이런 법을 활용,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세명을 중요한 부처 장관직에 겸직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여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인사조치다.

그런 법이 예전에 제정된 것도 이해할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여 독차지할수 있는 제도가 30년이 넘게 유지되면서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을 정도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도 그렇고 해당부처에서도 그렇고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하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양다리 걸치기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월급도 양쪽에서 받을 것이 분명하니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차리리 그 자릴 차관급 이하의 경험있는 공무원으로 대치했으면 좋았을 것을..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조치도 이전의 정부와 크게 다를바 없어 기분이 좀 씁쓸하다. 매번 말로만 개혁을 떠들지 세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행태들에서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니 여간 답답한 현실이 아닐수 없다. 우리 이제는 걸은 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요지부동하는 태도를 버리자. _ _

검찰도 개혁한다더니 여전히 똑같지 않은가?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법무부는 다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매번 말로만 개혁한다고 하지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현 법과 제도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필자의 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

제목: 엠파스 블로그 건의사항...

오늘 하루종일 카테고리 목록의 번호가 클릭이 안되면서 다음번호를 클릭하면 추천 블로그가 나와버리는데 그거 장난으로 그러신 건가요? 새로 개편되면서 그렇게 바뀐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셨으면 넘 시간이 오래 가는것 같네요. 저도 시간이 남아서 블로그 운영하는것 아닙니다. 그리고 글 하나하나 쓰는데도 정성을 들이고 있구요. 좀 장난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수정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계신건 알지만 이런 쓸데없는 장난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개발자님한테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전 언제라도 여기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Daum을 떠난 칼럼니스트인데요 엠파스마저도 블로거들을 배신한다면 영영 이 분야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칼럼공간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리죠.

엠파스가 오늘 개편하면서 장난을 하는것 같아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전 지금의 엠파스 체계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글을 자주 쓰지 않으면 영영 컴퓨터 속으로 블로그 공간이 묻혀 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수 있죠? 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음도 그렇고 엠파스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꾸려온 칼럼과 블로그인데 그러실 수 있는지... 전 Daum을 떠나면서 엠파스도 언젠가는 그럴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정 네티즌과 나라를 위한 블로그를 만드실 계획이라면 상업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은 약간 수정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드리서 죄송합니다.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아서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_ _ _

맞어, 목록번호 클릭 안되는것 수정하시기 전까진 새글 쓰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고집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형 쇼핑몰 상품평 문제있다.

예전에 필자는 Daum에서 겨울 방한용 귀마개를 구입한 적이 있다. 실제로 물건을 보지 않아서 단지 웹상에 나온 사진과 스펙을 보고 구입을 하였지만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가격에 비해 좀 조잡하고 귀에 잘 맞지가 않았다. 하지만 구입한걸 물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솔직담백한 상품평이라도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성들여 상품평을 썼더니 아니웁걸 상품평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Daum쇼핑'에 전화해본즉 담당자 이야기왈, 자기네들이 올라온 상품평들을 살펴보고 선정해서 적당한걸 게재한다는 것이다. 난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해서 그럼 좋은 얘기만 게재하실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필자와 같이 솔직담백하게 상품평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도우려 하여도 쇼핑몰 담당자들이 중간에서 글을 보고 가로채 버리니 이게 무슨 쇼핑몰 상품평인가? 이건 쇼핑몰 상품평이 아니라 횡포에 가까운 것이다.

그 일로 꽤썩한 생각이 들고 은근히 열받고 화가나서 Daum 같으면 그런 부당한 사이트 운영원칙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우리네 포탈사이트의 쇼핑몰 운영 행태가 대충 이렇다.

컴퓨터부품 전문 가격비교사이트인 다나와 같은 경우는 각 부품에 대한 상품평과 리뷰를 달 수 있게 만들어 놔서 혼란스럽지만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매장판매와 온라인판매까지 구분해 놓아 상인들의 못된 횡포를 막는데 노력하는 모습에서 정말 이곳은 믿을 수 있는 사이트구나 할 정도로 자주 이용하게끔 사람을 만드는데 전자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것도 모잘라 이상하게 답답한 쇼핑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연발해 낸다.

최근에 와서는 이곳 'empas 쇼핑'에서도 온라인 구매를 두어번 한적이 있는데 이전에 구입한 의자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어서 상품평을 쓸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구입한 전기주전자는 문제는 없었지만 약간의 위생상 결함이 보여서 제대로 된 상품평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상품평을 게재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놓

은 것에 대한 답답함이 연신 가슴을 때렸다.

결국 컴퓨터에 도통한 나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문의글만 남겨놓고 포기하고 말았다.

대형 쇼핑몰들이 그런 식으로 소비자 상품평에 대한 서비스에 인식해 하는것은 당장 먹기 좋은 상품으로 포장해 얼마간 물건을 반짝 팔 수 있을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비싼 물건을 믿고 거래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싶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속보이는 정책으로 쇼핑몰을 차려놓고 소비자를 올리면 누가 그 쇼핑몰을 이용하겠는가 말이다.

물건 한번 팔고 문 닫을 거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해도 좋다. 하지만 한번 팔고 두번 팔고 앞으로 계속 장사할 거라고 한다면 그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된다. 나라도 절대 그런 쇼핑몰에서 두번 다시 안산다. 차라리 발품해서 직접 보면서 사고 말지... 온라인에서 가격을 알아보고 오프라인으로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방법과 같이 말이다. 그럼 위험부담도 없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참으로 답답한 하루다. _ _ _

p.s 가격은 싸데 약간의 부족함이 보이네요...

저도 미처 거기까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받아보니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서 가열시 환경호르몬이 초기에 물어나올 염려가 있는게 약간 흠입니다. 나머지 가격과 성능 디자인, 부속등은 만족할만 하지만 중요한 위생을 생각하지 않고 나온 제품인것 같아요.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위생적인 부분은 제품 출하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덕목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좀 규제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이걸 뭐 플라스틱 냄새가 진동을 하니...

제목: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 정부 책임져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걸 전격 선언했다. 그동안 반신반의하면서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을 바랬지만 북한이 보기좋게 남한을 배신때리고 전격 핵무기개발(핵개발이 아니라 핵무기개발이다-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을 선언했다. 6자 회담은 매일 하면 뭐하나? 핵사찰이 전제되지 않는 회담은 한갓 무의미한 자기 성토장이 될 수 밖에 없고 한미일중려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면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받을 수 있는 당근을 적극 제시했을텐데 회담만 계속 공전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런 어이없는 뉴스가 터지고 나니 필자로서도 무척 당혹스럽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북한으로부터 핵사찰을 받아내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외교부의 무능한 대처가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켰다. 핵사찰을 받아내지 못할 거라면 미국과 공조하여 사전에 강제적인 억제력도 고려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채 북한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그게 평화적 대치상태든 긴장상태든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선 큰 위협적 존재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화를 갈망하는 열의를 생각했을때 당국자들이 반드시 저지했어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이였다.

이제와서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고 떠벌릴것 같으면 아예 말을 꺼내지도 말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는가? 필자가 누차 강조했지만 전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의 감축이 앞으로의 중요한 이슈인데 정부가 이제와서 그런 말을 꺼낼것 같으면 아예 직위를 냉패겨치고 시골로 낙향을 하는게 좋을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미일중려와 함께 긴

밀히 협의하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참으로 답답하다. 매일 6자회담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_ _

제목: 참여정부에서 200자 제한이 왜말입니까?

안녕하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엠파스 블로그에서 개인적인 칼럼을 쓰고 있는 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전부터 참여정부의 국정에 관심이 많아서 노무현대통령님이 지시하여 창설하신 국정브리핑에 자주 들러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달아왔는데 여기가 언제부터인가 개편이 되면서 기사에다 댓글을 다는 의견란에 200자 제한을 두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이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해명을 듣고 싶어 이렇게 자판을 잡게 되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지로서 국가가 발령하는 각종 시행정책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가장 빨리 접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의견을 다는 행위는 곧바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200자 제한이라는 정책을 국정브리핑이 계속 버리지 않고 계속적인 개인적 건의에도 나몰라라 하는 행위에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국정브리핑 사무관과 통화하면서 검토의견을 계속 받아냈지만 아무 성과가 없어서 오늘 다시 전화하여 200자 의견에 대한 부당함과 국민의견청취의 소극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만 그쪽에서 말도 안되는 변명을 일삼으면서 서버가 무리가 가느니 방침이 그렇다느니 하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힘들게 의견을 달아 참여하겠다는데 글자수 제한을 두는 국정브리핑이 잘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에 대통령이 진정으로 참여정부의 기치아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노대통령님이 창설하신 국정브리핑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실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전자정부와 참여정부의 이념과도 일치하구요.

전 오늘 그 사무관과 통화하면서 껍 막혀있는 벽과 얘기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아들게 정당성과 명분을 호소하여도 먹혀들지 않는 고집과 변명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걸 눈치를 챘습니다. 다른 포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빙빙 말을 돌리길래 언론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대답을 못하고 오늘 기분만 망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정책기사에다 200자 제한을 가하여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이제는 의지할 데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마저도 저의 의견을 묵살하신다면 대통령이 진정으로 참여정부에 뜻이 없고 국민의 의견을 인터넷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고 단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러한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큰 실망과 함께 참여정부와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건의에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칼럼주소를 알려드리죠. <http://blog.empas.com/blrun2>

200자

부동산 취득할때 과세표준 7000 적고 500만원이 세금이라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실거래가로 매겨 세금을 엄청 매긴단다. 그리고 보유세도 오르고 1주택 소유자들은 완전 세금징수 무대의 봉이다. 어떻게 이런 세율이 적용되는지 어이가 없

을 뿐이다. 그리고 공공주택 원가공개는 다 어디갔나 이런 무분별한 세금정책은 정부의 뻔뻔한 부동산 정책의 일면을 잘 말해주고 있다. 세금만 걷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200자 제한을 가해 국민들 입을 틀어막는 국정브리핑 열간이들은 이 나라의 관리가 맞는가? 참여정부는 무슨 개나발 같은 참여정부...

내가 세금을 내기 위해선 우리 형이 준 돈을 아껴서 관리비 내고 세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몸이 별로 안좋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주변의 직업학교를 수료해 기술을 단련했지만 그것 가지곤 안된다. 워낙 만성화된 병이 있어 집에서 그냥 컴퓨터 공부하고 웹사이트 만들어 비영리사이트 만드는데 기여하고 만족해야 한다. 이러는줄 모르고 공돌이들이 이런 정책을 편다면 난 정말 이 정부에 대해 혐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돌이가 있다면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국민들은 한계상황에 직면에 있다. 물론 거시적으로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정신과 마음은 많이 황폐화되어 있다는점 명심하기 바란다.

제목: [펌]부동산가격 안정인가? 세수확보인가?

오늘날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주장하면서 내어놓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제목아래 국민의 재산을 국고로 거두어 들이는 작업만 계속 하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이렇게 생각도 없는 듯한 정책을 과연 어떤 사람이 내어놓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보유세 상승을 통한 부동산 소유 억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치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것이 아니라 집없이 살아가는 국민의 숫자가 늘어갈 것이고, 양도세를 많이 올려서 부동산 이익부분을 자꾸 거두어 가려고 하면 건설경기는 얼음이 되고 말것이다

전국의 땅값을 상향조정하면 결국 세금은 많이 거둘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집을 보유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집 값이 내렸을때는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 정직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 국민의 아픔을 자신들이 느끼면서 정책을 발표하면 좋겠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투기억제에있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실천하면 좋겠다.

대안을 제시하면 이렇다. 부동산 공급가액을 낮출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투기가 억제될것 아닌가
(*토지개발공사는 땅장사 그만하고, *.주택공사는 뺑튀기 분양가 철수하고,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직하게 공개하는 법을 입안하고, *.몇단계씩 내려가는 하도급 건설 형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인, 허가 단계에서 관행처럼 시행되는 돈봉투 주고받기 근절하고,)
해야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러한 것에 관하여는 한마디 말도없고, 집 가진 국민들을 마녀사냥 하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님은 조금만 더 정직하게 일 하면 좋겠다. 결국 집값은 나라에서 올려놓고(뺑튀기 분양가 묵인), 오른만큼 거두어 가겠다는 정책이 우습기까지 하다.

물론 정책개발에 있어서 소 시민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왜 없겠냐마는 소 시민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 이것은 분명한 문제점인것 같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 집을 사고, 파는일은 쉽게 해주고, 보유세도 내려주고, 다만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정직한 가격'을 정직하게 유지시켜, 거품으로 올라있는 아파트 가격이 저절로 내려올수 있는 정책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목: '네티즌' 말살어 정책 '누리꾼'

요사이 인터넷 뉴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다. 다름아닌 '누리꾼'... 장사꾼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닌 '누리꾼'. 다분히 저속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느낌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란 컴맹단체가 선정한 신조어라니 알만한 탄생배경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다.

말은 어떤 객체의 기호와 추상성을 대변하고 있어서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특정한 형태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국어연구원의 '누리꾼' 제정은 의도적으로 네티즌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더욱이나 문제는 인터넷 뉴스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이 단어를 요사이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들 중에는 저열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네티즌들을 "꾼" 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정치개혁을 이뤄온 IT의 전문가들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그들의 공로를 잘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도 붙이지 못할 '누리꾼' 이란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저널리즘과 국어학계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IT열풍의 신조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정략적 의도든 언어학적 의도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목: 관리비의 블랙홀 "엘리베이터"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네요. _ _

먼저 정전 문제는 저도 심각하다 싶어 한전에 그당시 문의해 보니 변압기 용량의 문제인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 정전 당시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문제해결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거성"이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매달 2백80여만원씩 그쪽에다 지불하면서 A/S 담당을 해왔는데 정작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때는 별도의 부품비와 용역비를 수천만원씩 더 지불하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구요, 이제는 한술 더떠 매년 4천7백만원을 수리비로 정하여 고정비로 할당해 놓고 매달 나누어 갚아나가고 있으니 정말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 고정비로 엘리베이터 수선비를 할당해 놓으면 고장이 안나도 그쪽에선 가격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로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302동이나 지하엘리베이터처럼 잦은 고장이 빈발하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전 동대표회의 때 일부러 제가 참석을 해서 동대표님들께 한마디 드렸습시다만 일부의 뻔뻔한 동대표 둘이서 회의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관리규약 상에 회의에 참석한 주민에게도 엄연한 발언권이 있는데 이런 불쾌한 예우에 기분도 나빴을 뿐 아니라 지하 깊숙한 곳에 회의실을 차려놓고 칸막이까지 하며 회의를 하는 동대표들이 무척이도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갔을때는 참석한 주민이 달랑 저 혼자더군요. 주민들은 회의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회의하는 모습도 안보이고 완전히 밀실회의장이라서 이런 사태가 이해가 갈만도 하더군요. _ _

엘리베이터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이트 우리 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가 교체하는 엘리베이터 부품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어디있는 부품이 뭐가 고장났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 고장났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관리사무소와 거성간의 관리감독 관계와 열쇠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들의 출입과 감독문제도 그렇구요.

제가 엘리베이터 교체부품들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만 원 고장난 부품들이 많은지 이것저것 다 가져다 붙여 수리비를 청구해 놓았더군요. 각 부품들이 엘리베이터에 붙어서 동작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디에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이고 그건 얼마만큼 자주 고장날수 있는지 등등..그리고 관리사무소와 거성과의 막후 관계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런 사실들은 우리 아파트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 있어 사실상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모르면 완전히 거성이나 관리사무소에게 당하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요놈의 관리사무소나 거성엘리베이터가 수리비 청구하는거 보면 지극히 지능적입니다. 항목을 여러개 벌려놓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부품비를 벌려놓은다음, 합산해 거액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부품의 기능을 알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아무리 엘리베이터라고는 하지만 기계에서 고장나는 부품은 거의다 한두가지일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저는 컴퓨터에 대해 잘 알고 엘리베이터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원이 꼭대기 층에서 방화수로 계단을 청소할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관리사무소는 괜찮다고 우리가 그런것 모르겠냐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자주 고장나고 매번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동대표회장에게 청구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물리적 장치와 전자적 장치가 결합된 것인데 물에는 전자장비들이 고장나기 쉽기 때문에 특히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보드 보드 그러는데 보드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몇년이 지나도 쉽게 고장나지 않는 부품입니다. 로우프 교체도 그 지름을 매년 검사해 재가며 정기적으로 교체한다고 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로우프들은 몇겹의 로우프들이 맞물려 안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군가 범행을 하지 않는 이상 설사 한두개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결함이 전혀없는 우수한 안전성을 갖추었습니다.

매년 4천5백만원이란 돈을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청구하는대로 다 결재해 주기 이전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제대로 관리되는 되었는지 추궁하는게 순서입니다. 또 부품비 항목이 어디 잘못돼 있는지는 없는지 부품비는 과다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동대표들이 있는 것이지 엘리베이터사용료 턱없이 올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과다청구 했을때 액면 그대로 다 결재해 주라고 동대표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와 거성엘리베이터는 관리비 내는 주민들을 계속 농락하려 들지 말고 이젠 진정으로 주민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이젠...

제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충고

이제 주택은 부동산업자들이 하는 투기가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금 정책도 거기에 맞춰 따라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첫째,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물유도 정책이 정부에서부터 일관성이 없다. 처음엔 2주택자들에게 엄청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니만 얼마있다 번복하고 1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면제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질 않나 국민들로서는 무척이나 헛갈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1주택의 국민들은 세금 낼 형편이 못되는데 지금까지 거래세와 등록세로 대박을 잡았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른지 보유세 인상까지 들고 나왔다.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매물을 유도함이 옳은데 정책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셋째, 정부가 투기꾼들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왠지 모르겠지만 의지력이 약한지 자꾸 반복만 거듭하는 이상행동을 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분양가 공개도 그렇고 거기에 목매달아 투기꾼들이 저리용자를 통해 집을 몇채씩 분양받아도 매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도시키지 못한다. 1억 8천에 분양받아 2억 8천에 팔면 1억이란 돈을 챙기게 되는데 그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챙길줄 알았지 서민들이 비싸게 주택을 구입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세간에 분양권 전매금지나 금리인상 문제도 대두된 것이고 말이다.

이 세가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집값안정을 이룰수 있고 국민 전체가 집을 가지면서도 적지않은 금액의 보유세 수입을 챙길수 있을 터인데, 정부가 너무 일관성이 없이 세수입에 눈이 멀어 욕심을 내는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상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공정한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집 많이 가져봤자 무덤에 그것 가져갈것 아니잖습니까? 또 모든 국민이 내집 한채로 부유해지면 재산세도 더 많이 걷힐 터이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지 과욕은 금물입니다. _ _

제목: 보일러 기사는 아니지만...

우리 아파트 보일러는 난방과 순간온수 기능이 있는 대성셀틱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른 평수는 어쩐지 모르겠네요. 33평 기준입니다)
난방은 아시다시피 연소(가동 표시등)와 비연소가 반복되면서 방이 뜨거워지는데 연소 시간이 길수록 가스비가 많이 나오고 비연소 시간이 길수록 방은 차갑고 난방비는 절약됩니다.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우측 시간/온도 스위치와 함께 전면 상하 조절기로 조절해 주는 방식입니다.

순간온수는 온수나 난방모드 상관없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관에 물이 흐르게 되면 보일러가 연소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난방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정지가 되고 뜨거운 물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난방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본통에 있는 온도계를 약 80도 가까이 셋팅해 두고 거실 온도계를 80도 이상으로 해 두면 뜨거운 물을 쓸수가 있는데 물이 뜨겁지 않다고 한다면 거실 온도계를 80도 이상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간온수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엔 찬물이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는데 뜨거운 물을 이어서 쓰다가도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 수도관의 물은 끓기고 보일러 연소가 얼마간 더 진행된뒤 멈추게 되는데 이때 보일러 내 순간온수통의 물은 더 뜨거운 물로 한번더 가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 수도꼭지를 열면 거실바닥 배관에 흐르고 있는 뜨신 물이 나오고 나서 이어 더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지고 난 후 찬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순간온수통에 채워진 물이 뜨거워질때까지 처음보다 약간 적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이 일정온도로 뜨거워지면 다시 이전온도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뜨거운 물이 시원치 않다면 보일러 왼쪽 이물질을 거르는 필터를 열어 청소해보시고 겨울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씩 흘려 뜨거운 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정말 물이 너무 뜨거워서 걱정인데 겨울에 물이 뜨십지 않은것은 보일러의 가열용량 때문입니다. 겨울의 수도관에 흐르는 물은 매우 온도가 낮는데 그걸 데우려면 몇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일러의 용량이 달릴수 있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정도는 뜨거운 물을 쓸수가 있는데 '빈맘'님의 댁은 뜨거운 물이 안나오나 보죠? ^^; 이렇게 해도 안되면 대성셀틱 보일러에 A/S신청을 해보세요. 보일러 벽면에 아마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일부러 말해주기도 이렇게 힘드네요. 그럼 이만...

제목: 신문고

밑에 오영식님 말씀에 동감, 신문고나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상급기관으로서의 중재는 찾아볼수 없고 전부다가 해당담당자로의 이첩이 전부입니다. 해당 공무원한테 넘길것 같으면 구청에 민원낼지 왜 신문고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겠습니까? 다 전시행정입니다. _ _ _

제목: 실버세대와 IT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행복도시...

산업화 1세대인 우리 부모세대들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산업화 2세대들도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행복도시는 절대적으로 실버산업과 뿔래야 뿔수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두 세대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주거/의료/IT인프라/소호(SoHo)시설/녹지/건강/음식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실버타운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물론 그밖에 바이오 산업도 중요한 테마이긴 하지만 바이오는 곧 의료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황박사 주변에서 일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가 자연스레 행복도시의 의료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국가적 인프라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시에 너무 많은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비용의 문제와 도시 이미지 형성에도 방해가 된다.

이제 산업화 2세대들도 정보화 시대를 만끽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부모세대인 산업화1세대를 부양해야하는 현실적 위치에 놓이게 된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동태는 현재 출산율이 저하되고 극도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도시의 개념도 이같은 사회적 변화를 따라 반영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또 얼마나 성공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업의 성패도 좌우될 수 있다.

문제는 실버타운을 구현하는데 있어 정부가 어디까지 복지행정의 역할을 하고 개인은 어디까지 이용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거는 임대와 자가의 형태로써 지금과 같은 형식을 띠면 되고 의료와 건강시설 역시 현행과 같이 정부가 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하면 되고 IT인프라와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는 개인이 부담하되 사회적으로 실질적 기여가 있는 조직을 보조해 주는 형태가 가장 좋지 않을까 사료된다. 녹지 부분은 공공분야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되 충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음식점등은 상업공간을 조성해 자연적으로 민간업주가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다만 실버타운의 특색답게 임대료(아님 자가소유)와 복지부담료 형식으로 한꺼번에 부과하는 방법과 위와 같은 개인적 부분의 부담을 개별적으로 부담하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어느 하나로 결정하지 말고 동시에 시행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가지 빠진 주제가 있는데 교육시설(부대시설)이다. 공립학교설립도 중요하지만 실버타운에서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이란 개념의 여러가지 주제의 교양 및 직업교육 시설이다. 이런 교육시설에서 양산된 정보가 IT인프라를 통해 전국으로 파급될 수가 있고 소호시설을 통해 사업적 모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상이 필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시의 청사진이다. 조금은 현실적이라고 볼수가 있다. 추진위에서 꼭 참고해 실제적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추신>

예정지역은 행정관청이 들어설 것이므로 주변지역을 실버타운으로 조성해 전국의 노령

화되는 인구들을 총집합해 수용시킬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게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다. 노령인구복지 차원에서 말이다.

제목: 네이버의 가입자 아이디 정책

얼마전 하나포스 뉴스에서 네이버와 일부포탈에서 동일 가입자들에게 아이디를 세개까
지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맨처음 난 이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는데 이전에 한게임에서 내 개인정보로 2개의 아이
디가 더 생성된 것을 알아차리고 삭제를 요청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로서 네이버측에
오늘 강력하게 이 부분을 항의했는데 그들이 견지하는 현실인식은 어이없게도 적반하
장이었다.

내가 그런 정책이 개인정보유출이나 익명성 조장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따지니까 하는
말이 고객님도 세개 만들어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내 개인정보로 아이디가
도용되어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디를 미리 더 만들어
놓으라니 한마디로 아연실색이다.

그리고 난 실명제를 고수하는 네티즌 중에 하나고 은연중에 실명을 내걸고 글을 올리
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익명성과 개인정보유출을 조장하는 발언을 고객센터 직
원이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유구무언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네이버는 비록 검색효과가 아직 경쟁력이 있고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도 많지만 이런 부
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고쳐야할 부분이 많다. 한마디로 후진적이고 저열적이라라
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 부분에서 고객센터 직원에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실명을 내걸고 글을 쓰
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만들어 버리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럼 고객님도 익명으로 글
을 쓰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여러개의 아이디가 실명성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명인증을 하기 때문이라나? 그럼 동일 사용자한테 여러개의 실명인증을 거
쳐 3개까지 아이디를 발급하는 그 저의는 뭔가? 말도 안된다.

한마디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뒷전이고 가입자 늘리기와 익명성 정책을 강화하겠
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하도 어이가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리니 이 문제가 좀더 많은 사
람들에게 이슈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목: 이제 구구한 말은 필요없고 과정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쓸데없는 질문공세로 황박사를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 이
제는 구구한 말은 필요없고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생성에 대한 검증만 이루어지면 되
는 것이다. 물론 이후 분화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너무 오류를 확대포장해서 해
코지를 할 필요는 없다. 황박사의 기자회견을 듣고 어느 정도의 결백성은 느낄 수 있
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매너있는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논문의 오류와 그가 저지른 실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그의 백의종군을 한번 지켜
보는 것이 어떨지...

제목: 내 생각은...

장관을쫓아낸것도아니구 자기들이전당대회때문에나간공석에 앉힌것가지고 너무머라하
지압시다. 물론 이해찬의원을비롯한 노무현대통령의 끼리끼리인사는 도를넘고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앉힐수는없는노릇 아닙니까? 그네들입장에선말이죠. 그리고SBS에서 쫓
은장관경질에대해얘기했는데 자기발로나간 장관공석자리에 적용이나될수있는이야기인
지 모르겠네요. —_—

제목: ㅎㅎ, 하나포스는 잡탕밥인가?

한마디로 어이가 없군요. 가만히 눈에 들어오는 메뉴들을 분석해 보니 국내소식과 해외소식, 시사와 연예, 성인물과 정치, 스포츠와 유머 등이 함께 어지럽게 뒤섞인 잡탕밥도 아니고 난잡한 싸구려 포탈을 연상시키는군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대형 포탈이라고 할수가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이제 교통정리좀 하시는게 어떨지...

제목: 문화와 예술이 조화된 행복도시...

저는 지난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전국의 노령화 인구들을 집결시켜 새로운 특성화도시로 육성하자고 제안한 국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주제가 빠져 다시 이렇게 제안을 수정해 첨가합니다.

그게 바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된 행복도시입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는 첨단기술과 컴퓨터문명의 발달로 더더욱 인간성이 소외되고 삭막해진 인프라로 인간이 무엇을 갈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간을 중심으로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여 안타깝게도 사회 생활 가까이에 이 개념이 뿌리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유럽같은 나라는 국민들이 상시 다양한 문화예술을 실생활 주위에서 자주 접하면서 거부감 없는 생동감을 얻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변을 보면 온통 아파트와 상업시설, 고층빌딩 뿐으로 이런 생동감있는 문화를 접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이 요즈음 불고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을 거기에 첨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도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파트 중심이 아닌 첨단문명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주거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독립영화나 창작성이 높은 예술영화를 상시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을 많이 짓는다던지, 아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연을 많이 개최한다던지 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또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녹지와 문화거리를 퓨전하여 삭막한 거리를 좀더 문화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와 예술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주변환경이 거기에 맞게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또 일회성이 아닌 다발적인 문화와 예술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 국민들도 삭막한 아파트 공간을 떠나 거리로 거리로 또 사람들에게로 뛰쳐나가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것 같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위해선 매우 중요한 발상입니다. 국민들이 삭막한 공간에서 창의성과 창조성을 억압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연과 문화와 예술이 조화된 공간에서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질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여러가지 부대시설과 실버타운, 평생교육시설속에 있는 첨단인프라, 그리고 자연과 문화가 경비된 예술의 도시, 이것이 제가 그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도시계획구상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된다면 세계에서 보기드문 성공적인 도시개발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목: 백두대간 산불을 방관하는 산림청

산림청은 1994년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백두대간 산불의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해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 백고사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림청에도 산림방재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터인데 이러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상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인재들도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5년의 짧은 영터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년, 수백년 이상 자란 나무들을 잣더미로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산림청은 오늘 이 글을 읽는 즉시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철저히 사죄해 다시는 백두대간에 대형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 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주무부서가 이렇게 국민의 혈세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몇년사이에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런 따름이다. ——

제목: 네이버 댓글제한 어이없다.

네이버가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의 수를 10개로 제한한다는 소식을 오늘 낮 MBC뉴스를 통해 접했다. 한 술 더 뜬건 MBC가 이런 식의 댓글 제한이 다른 포탈이나 웹사이트들로도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이다.

악플러가 아닌 나로선 맨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네이버 회원이 아니었지만 고객센터에 30분 가까이 전화를 기다리면서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을 들었다. 하루에 쏟아지는 수백건의 기사에 대해 내가 일일이 댓글을 달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악플러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여러개의 댓글을 달고 싶으면 아이디를 수십개 만들어 쓰라는 것이다. 난 이 대목에서 말문이 막혀 그냥 전화를 끊고 말았는데 실명제도 우습게 알고 정체불명의 클론 아이디를 양산하는데 앞장서는 네이버가 참으로 위험스레 보였다.

하루에 수백건에 달하는 뉴스가 생산되면서 원치않는 뉴스, 허잡한 뉴스, 상업적인 뉴스, 가공(假工)의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되지만 포탈들의 편집권에 밀려 수백자 수천자의 쓰레기같은 뉴스를 200자 제한이라는 작은 통로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보고 들어야만 했던 우리 네티즌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같은 대형포탈이 10개로 하루 댓글을 제한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인터넷세상을 이해당사자(정부와 기업)와 협잡한 기사들만의 단방향 세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알팍한 술수로 밖에 볼수가 없을 것이다.

오호통재라, 정치권이든 인터넷 세상이든 진정한 자유·평등의 네트워크 세계를 꿈꿨던 군자는 어디가고 협잡꾼들만이 판을 치고 있으니 다가올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제목: 초등생 살해범의 무기징역

오늘 하나포스 뉴스를 대충 살펴보니 초등생 살해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본인은 사형을 원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중요한 것은 초등생 성폭행 살해범이 단지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곳 하나포스에서도 각종 뉴스에서 선정적이고 관능의 분출을 자극하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같이 초등생 살해범의 공범인 것이다.

그래서 난 그때 초등생 성폭행치사가 단지 그 범인의 살인행각이 아니며 방송과 인터넷매체가 만들어낸 광기의 복합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 보도행태가 욕구를 분출시키고 모방범죄를 만들어내 또다른 성폭행범을 양산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부정할 것인가?

우리는 범죄자가 만들어낸 죄는 잘 보면서 우리 주변의 공범들의 죄는 너무나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젠 이런 공범들을 가려내 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제목: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 하고 의구심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허나 나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구심력이 생기는 것이며 내가 타락하고 상식에 벗어나면 세상도 그런 사람들로 넘치게 된다. 하지만 남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먼저라도 상식을 중요시하고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작은 노력을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목: 개같은 하나로 PC닥터 위약금...

하나로통신의 변칙적인 시내전화요금 인상과 인터넷이용약관의 변경, 그 약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는 회사측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할 걸어 해지를 하겠다고 하고 위약금 계산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3년 재약정할때 추가 10% 할인된 2개월치하고 한번밖에 이용하지 않은 PC닥터의 1년 사용치 3천원X12개월 해서 3만 6천원, 그리고 3년약정 할인액 12개월치를 더해서 6만원 가까이가 된다는 말에 처음엔 아연실색했다.

할인액 소급청구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일일이 해가며 공짜라고 PC닥터 이용하라고 해놓고선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해주겠다고 한번 이용한 것이 결국 해약할때 1년치 사용료를 반환해야하는 위약금제도로 역이용하는 하나로의 파렴치함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가 월요일 정보통신부에 강력히 항의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의 개같은 요금제도가 고객들 동의없이 멋대로 정해져 횡행되고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를 울리는 하나로의 파렴치함은 수많은 가입자들의 울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는 반드시 가입자 이탈에 부메랑 효과로 돌아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나선 PC닥터를 유치하면서 인터넷해약시 전부 물게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하나로 의 억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말 들으신분 계십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세상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회사는 망해도 씁니다. 나도 하나로통신 이용하지만 정말 이제 필살기 각오로 인터넷 이용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고 뭐고 인터넷이고 뭐고 일벌백계만이 남았습니다.

제목: 삭제된 댓글...

저같은 경우도 친구와 식사를 하고나서 이전에 얻어먹은 경험이 있어 내가 사겠다고 하면 친구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각자 내자고 말한다. 솔직히 난 내가 사줄 생각이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적잖이 서운하긴 하다. 이상 반론이었구요. 이성에 대한 욕구의 반동에 대해선 할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지하철에서 두개의 자리가 비면 예쁜 아가씨 옆자리를 피한다든지 걸음이 빨라 앞에 있는 여자들을 앞질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본능의 솔직함에 대한 반동형성이란 스트레스라기보다 더 편안한 길을 택하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동감합니다.

제목: 심리글 답글...

정말 어이가 없다. 생활속의 심리학 글이 하도 재미가 있어 내가 힘들게 댓글을 하나 달았더니만 누군가가 삭제해버렸다. 운영팀인지 개발자인지, 아님 다른 사이트 관리자인지 내 게시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관리자급임에는 틀림이 없다.

오늘 전화를 받은 하나로드림 담당자님께서서는 속히 그 사람을 찾아내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적인 감정이 섞인 장난도 아니고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심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를 골탕먹이는 자가 있

다면 정말 그 사람은 욕을 뒤집어 먹어도 싸다. 허나 이건 몰랐을 겁니다. 내가 클럽 보드에 그 내용을 카피해 뒀다는 사실을... ^^

제목: 평택시위

이 기사 꼭 앞으로 시위하면 다 여행한다고 엄포놓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기사나 헤드라인에 올리고 천리안도 한심하다.

제목: 대안있는 비판을

비판은 비판인것 같은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하겠네요. _ _ _

제목: 게시판 개발자 및 관리자는 보십시오.

지금 게시판 댓글이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확실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객센터 직원과 대판 싸우고 나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장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들을 골탕먹이는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힘들게 쓴 댓글을 자기맘대로 보여줬다 말았다 하며 상대를 약올리는 나쁜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말 할때 그만 하세요. 고객센터도 평일날 전화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참을만큼 참은후에는 나중에 폭발하는 법입니다.

중간에서 누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패킷을 잡았다 놓는다면 그 사람을 찾는 노력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제 생각엔 게시판 소스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즉 하나로 내에 범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비 댓글

2년 학비는 부모님이 대주셨지만 97년 졸업 이후로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데모하는 학생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방외교에 있어 미국이나 북한 등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얘깁니다. 자주외교는 대내간섭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외교안보란 경제협력과 외교친분을 통한 다자간공동군사협력을 말합니다. 이정도면 구체적이지 않은가요?

제목: 군대 댓글

그리고 군대얘기를 하셨는데 군대는 지병으로 면제받았습니다. 일부 나일론 면제자들 얘기는 분명아니구요 고등학교때 잘못된 교육문화 때문에 병을 얻어 지금까지, 아니요 평생 약을 먹게 될 팔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저와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죠. 아까 생활비를 번다고 했는데 제가 쓰는 컴퓨터를 비롯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전 제가 가진 장애를 최대한 안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게 지긋지긋해져서 이제는 집에서 쉬고 있지만 여전히 용돈과 생활비는 제가 벌고 있습니다. 장애를 안고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답니다.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선 말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나에게 병을 안겨준 책임도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면 저도 사회에 많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한이 맺혀서라도 못하죠. 이게 제 입장입니다.

제목: 의경댓글

그리고 죄없는 전의경을 폭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왜 서로 같은 국민들끼리 쇠파이프 들고 싸워야 하는지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건 순전히 체제의 요구에 의해 희생당하는 국민들이란 안타까운 생각뿐이네요.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건 아니지만 민주공화국이란 주제에서 국가의 도의적 책임을 쏙 뺀 듯한 발언이라서 좀 듣기에 거북하네요.

제목: 인구감소 댓글

밤송이님은 윗글에서 그럴듯한 장광설을 늘어놓으셨는데 젊은이들의 결혼기피현상을

단순히 그들의 이기심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결혼기피 젊은 세대들은 부모세대의 고도성장이 만들어낸 대표적 부작용인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들입니다. 자랄때 정상적인 이성교제와 취미활동 하나 해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 남들과 경쟁해서 1등해야하는 주입식 교육만 받아왔죠. 그런 상황에선 올바른 결혼관이 형성되기 어렵고 요즈음같이 정신적 향락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여러가지 홀몬계통 병까지 유발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로 순위에서 낙오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되고 또 병이 없는 학생들도 어른이 되고 냉혈한 사회를 만나게 되면서 여러 우여곡절의 고생을 하게 되면 결혼이나 아기 낳는 것들은 사치로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성관계에 대해서도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국내문제들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유입을 비롯한 국민연금기금의 축소(바닥이 난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기금의 축소는 피할수 없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남게된 순한국계 혈통들이,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금기금을 만들어줘야할 형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을 국가의 부속품으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첨단미래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국가와 민족주의, 물질주의는 쇠퇴하고 개인들의 정신적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목: 뭉쳐야 산다 댓글

하나포스 직원이 댓글이 안보이던 문제가 익스플로러 버전탓이라고 하길래 처음엔 웃음이 나왔다. 덩치가 큰 6.0이 쓰기 싫어서 지금까지 죽 5.5를 쓰고 있었는데 그 말을 믿고 허실수로 6.0으로 업데이트 해 보았다. 근데 뜨는게 왠지 불안한게 영 미덥지가 않다. 작은 방에 있는 98컴퓨터는 그럼 못쓰는 것인가? 거기에 6.0을 깔면 느려서 못쓰는데... 허참 이 일을 어쩌나... _ _ PCI-Express도 별로 빠르지 않고 댓글도 말썽이고 이 그림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늘은 함 믿어보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세상 참 마술쟁이들이 많아서... 언론도 그렇고 꼭 보면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는단 말야. 그게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 나에겐.

제목: 교묘한 댓글 정책

요사이 내가 쓴 댓글이 보였다 안보였다 지랄을 한다. 처음엔 안보였다 두번째 클릭하면 보이는데 그렇게 애길해도 무슨 배알이 풀려서 그런지, 댓글을 그렇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님 네티즌들의 댓글을 자기네 맘대로 제어하고 싶어서인지, 한마디로 욕갑을 떤다고 볼수가 있다. 그것도 지능적으로, 댓글을 아예 안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안보이게 했다가 재차 클릭해야 보이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이것이 개발자 혼자만의 아집인지 아니면 하나포스 차원의 댓글정책인지 아니면 네티즌 댓글을 통제하기 위한 통치권과 포탈간의 암묵적인 합의인지 내막을 들여다봐야 알 것이다. 내가 하나로드림에 유료로 전화한 건수만 20여건이 넘는데 이건 이용자들에게 대한 사기이며 횡포이다. 내일 다시한번 그쪽에 전화할 것이겠지만 이번주 토요일까지 전후사정에 대한 말이 없으면 난 영영 이곳을 뜨려 한다. 정말, 그나마 가입한 포탈, 그나마 이용하는 게시판이 이렇게 갑갑해서야... 힘들게 댓글을 달아도 이렇게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앞에선 나몰라라하고 한마디 던지면 또 장난치고... 이게 무슨 한 개발자의 사유물도 아니구 정말로 웃긴다. 익스플로러 6.0에서도 된다는 댓글이 여전히 안보이고 있다. 내가 떠나면 그 누군가가 신기하게도 그 버그를 수정할 것이다. 나도 그걸 바라고 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소스가 제공하는 게시판을 이용하길 바랍니다. 아래에 그 증거물을 올립니다.

제목: 댓글 횡포 댓글

심지어는 이런 적도 있다 아침에 댓글이 이상없이 보여서 소스보기로 소스를 보았는데 예전 소스가 아니었다. 근데 저녁에 바로 예전소스로 돌아간 적을 난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또 댓글이 안보였던 것이죠. 아마도 개발자가 약 못먹고 미친놈이 아닐까요?

제목: 삭제된 댓글

아래 댓글은 미친놈과 공범인 농인지 년인지, 삭제된뒤 다시 올린 댓글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아직까지도 댓글을 관찰하고 있다니... 정체를 밝히

시요. 혹시 그 범인? 삭제하시는분 쓸데없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진짜 지워야할 글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욕먹을 짓 했잖아요.

제목: 삭제된 댓글2

자꾸 삭제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시요. 제 핸편번호를 알려드리죠. 018-209-5482 몰래 삭제하지 말고 우리 말로 해결합시다.

제목: 북한 식량난 댓글

북한의 식량난은 우리가 도와줄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이 깨어나서 이제 전격적인 문호 개방과 경제개발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밀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북한에 남측이 식량을 대어주어야 합니까? 중국도 이제 무섭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젠 움추린 몸을 서서히 풀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스승의날 댓글

스승의 날에 이런말 해서 좀 그렇지만 교육부 정책인 내신반영비율 강화는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를 많이해야 합니다. 평가방법도 그렇고 내실있는 공교육이 바탕이된 내신 평가가 되기위해서 여러가지 복안을 짜내야 합니다.

제목: 첨단병기

혈~ 제 생각엔 전투력을 종교적인 신념과 결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전투력과 병행시킨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지요. 아무리 첨단무기가 많다고 하여도 병사들이 신념이나 의지, 기술이 없으면 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제목: 이회창 댓글

참여정부는 입으로만 정치하는 정부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정부 구호인 "참여 정부"도 말이 참여정부지 국민의 의견수렴밖에 되질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의견수렴도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민심과는 딴판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제도이죠. 대통령의 분권도 말만으로도 끝났지 실제적인 법률적 기반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참여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많이 변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의 느낌이 와닿네요. 공천비리의 복마전이었던 정당공천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재현되었구요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갑니다. — 물론 제도적 기반없이 뭔가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여론에 밀린 억지였지 법적인 정비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사이 한가지 주민소환제 하나는 제대로 이뤄낸게 있는것 같네요. 그것도 민노당이 해내었지요...

제목: 천리안 로그인 문제 댓글

두서없이 적은 글 같아 보이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동감이 갑니다. 개발자가 그러는지 회사내 방침인지도 모르지만 가끔 글이 안올라간다거나 댓글이 안보이는등 희안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횡태는 완전 근절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서비스가 아닌 서버의 관리자들이 저지르는 횡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넓게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사이 도감청 문제도 명쾌하게 밝혀진것도 아니잖습니까?

제목: 사악한 선거전

완전 친북세력을 사단으로 몰고 있군. 여보쇼. 난 이복을 체제가 아닌 동포로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소. 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팔지 말고 정신좀 똑바로 차리시요. 당신이야말로 글에 사악한 의도가 깔려있는것 같구려. 친북이란 그 알량한 흑백논리로 하나님을 말하자는 거요 정치적 의도를 말하자는거요. 정말로 헛갈리는구료. —

제목: 인터넷 여론

굴다리인생님 뭔가 중요한걸 잊으신것 같은데요 민중의 소리가 언론이 아니라나요? 좀 말씀이 과하시네요. 민중의 소리를 가공하고 포장하는 것이 기존 언론들입니다. 본질을 망각하고 사이비 언론이 득세하면 돌아오는건 망가진 정치행위들 뿐입니다.

제목: 게임아이템 법제화

게임 아이템 거래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젊은이들을 게임의 구렁텅이에 빠트리려는 전략도 아니고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현재로선 게임서버를 운영하는 회사측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이디 도용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선불리 말을 꺼내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제목: 네이버 댓글

나도 악플러는 아니지만 네티즌들의 쓴소리를 거르려는 포탈은 발전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네이버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댓글제한을 건다는 건 말도 안된다. 쓴소리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걸 막으려 하는 것도 분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짙고, ... 까놓고 얘기하면 그것 아닌가?

이 내용을 해당 기사에 게재하였더니 바로 편집돼 내려가더라.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여기에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 _ _

제목: 군사력 증강 댓글

천지님 3차 세계대전을 예견하지 말고 전세계가 군축을 시도해 평화의 미래를 나아갈 길을 설계하고 예견하십시오. 물론 군사력은 국방의 기본이지만 자국의 이기적 보호만을 위해 무분별한 군비증강을 조장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목: 출산율 감소 댓글

맞는 말씀, 상황을 알면서 정부는 구조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네요. 잘못된 교육과 사회분위기로 인한 뿌리깊은 문제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번 경기도지사 TV토론을 보니까 자립형사립고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정책에 대해선 다들 무뇌아들이더군요. 저도 결혼 안했지만 참으로 답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렇게 애길해도 아직도 일자리 운운하고 있으니 뭐가 뭔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멀쩡한 젊은이가 왜 일을 못하는지, 머릿속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당면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부터도 시험지로 뽑아서 학력경쟁을 시키는데 민간업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식들 학원보내고 입시에 매달리고 비싼 대학 못보내 안달이지요. 공무원 사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주5일제에만 앞장서지 말고 이젠 인재선발방식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댓글

강남 집값이 높건 말건 중요한건 정부의 태도와 세금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강남은 비강남지역에 비해 집값의 시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의 비협조로 제대로 시세를 반영한 세금이 걷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강남지역은 주민들 담합으로 가격이 오른거다 하며 말만 무성했지 정작 피해는 비강남 지역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남 지역의 세금을 낮추고 강남지역의 세금을 현실화 하든지 해야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비강남지역의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를 올려 받았습다. 요사이 집장만하시는 분들 등록세 많이 낸다는것 체감하실줄 압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세금정책하에서 외치는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 공염불이며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에 뜻이 있다면 공평하게 세금

을 부과하며 다주택자들 전매를 제한하고 세금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매물을 유도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고 분양원가공개를 비롯한 저렴한 주택공급정책을 써야 하는데 현실은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 및 거래세 면제기준 강화등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발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공무원들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이고 국민들의 불만이 쌓인다고 봅니다. 우리 정책을 펴려면 제대로 합시다. 정직하게, 공평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시다.

제목: 인터넷 짬새 댓글

면발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말씀이 과하시네요. 짬새라뇨? 그럼 면발님과 우리같은 사람들이 다 짬새가 되는 건가요? 그러나 분명한건 포탈들이 블로그 이용자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치권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지만 기업과 정부의 공생관계상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지요. 이젠 이런 게시판만 남고 지금 남은 블로그들은 죄다 광고선전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들어 일어난 일들인데 저도 과거 한참 블로그에 글을 올리던 이용자였을때 포털에서 제 블로그에 하나둘씩 장난을 치더라구요. 검색결과가 엉뚱하게 나온다던지 블로그 개편을 통해서 글의 노출을 어렵게 만든다든지해서 불만을 폭증시키더군요. 그래서 블로그를 삭제하고 글쓰기를 중단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런 일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의 창의적이고 단합된 목소리를 분쇄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해인건 분명한데 실추된 네티즌 권력의 불씨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소프트웨어로 통합되는 민주화세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겁니다.

제목: 열린우리당 참패?

김대중씨를 완전히 매도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과 한가지, 노무현 정부들어와서 자신을 당선시킨 블로그와 칼럼니스트들의 활동무대가 어떤 연유로 인해 좁아졌다는것. 노무현이 기존 미디어 언론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인터넷미디어를 비롯해 방송들도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네티즌이 생산하는 저널리즘을 분쇄하는데 동참했다는것. 이것이 요사이 인터넷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다. 그 입지란 무엇이냐? 인터넷미디어는 포탈사업이고 방송들은 기존 언론권력일 것이다.

제목: 주한미군철수 댓글

내가 보기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러하다. 상기한 내용은 너무 과거 역사에 비춘 기개없는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개란 것이 하루아침에 딱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이 서로 공동군사협력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도 공동군사협력을 가지는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만큼 힘이 없는 나라도 아니다. 그리고 상기한 글은 너무, 한국인들이 반미군, 반미국을 외치고 있는것처럼 말하는데 많은 수의 국민들이 미국과 미국인을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며 미 정치인들과 미국인들을 엄연히 분리해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와 안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본다. 핵폭탄을 맞은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과 경제 및 문화를 비롯한 다방면으로 교류해 나가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일본도 알고보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유구한 역사속에 파란만장한 사연이 도사려 있듯이 어떤나라도 불량국가가 따로 있을수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우리 역사가 비록 과거 외침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과거일뿐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안보체제가 이젠 절실하다고 본다. 우리가 과거 역사에 얽매어 우방국으로 지낼 수 있는 주변국들과 군비경쟁을 해나간다면 그것역시 위험한 행동일 것이며 동북아 안보에서 꼭 미군이 절대적 위치에 서야 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 절친한 친구는 한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명이 있을수도 있다. 절친한 친구가 여러명 있는 사람은 어려울때 더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것이다. 물론 현재 국력으로 보았을때 상당기간 미국의 절대적 지위가 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주변의 정세를 무시하고 일본, 중국 등과 거리를 두어서도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군사력경쟁이 아닌 경제를 주축으로한 무한경쟁시대이다. 또한 과거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이념이 대립하던 시대가 아니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 지구촌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 전세계 군비감축을 위한 공동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다.

제목: 면장님 댓글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은 우리 백성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정치인들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체제와 국민들을 분리해 생각하라는 것이 그 애깁니다. 앞으로 북한을 상대해 나가는데 있어 이런 점들은 반드시 필수 고려사항입니다. 우리 국내정치도 마찬가지구요.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로거저널리즘 내지 민주적인 인터넷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목: 민주노동당 댓글

다들 권력에 눈먼 정당들이지만 그래도 순서를 따져본다면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노당 순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노당이 가장 개혁적이고 민주적입니다. 열우당은 보수개혁(?)이라 할 수 있는 기성정당이 되어버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역에 웅거한 지역정당으로 옛날모습 그대로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나요? _ _

기업을 하는 경제주체들은 규제만 철폐하면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부패한 정부와 정치인들이죠. 그걸 보았을때 가장 합당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물론 장애인정책에 있어 너무 편향적인 시각이 있어 문제지만 이 시대 소외되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책을 펴려면 아직까진 민노당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기업들도 장사가 잘 되는 거구요... 민노당 노선의 한계 이후의 문제는 우리 나중에 생각해 보자구요.

제목: 자유민주주의 승리 댓글

전 열린우리당을 찍기 싫었지만 찍을 정당이 없어 그냥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을 찍었습니다. 근데 선거결과는 황당하게 한나라당의 완승으로 끝나대요? 전 너무나 어이가 없어 우리정치가 아직도 소수언론이 이끌어가는 패거리정치가 판을 치는구나 하고 한탄을 금치 못했지요. 여기서 패거리정치는 정당공천제를 말하는 겁니다. 공천을 했던 지도부는 단체장 후보들을 공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을 거뒀겠습니까? 물론 정당의 노선과 이념은 필요하지만 꼭 정당을 내세워 후보를 공천할 필요까진 없는 거지요. 우리 정치판이 예전과 달리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법과 제도면에선 달리 변한게 없고 그런 패거리정치가 지역분열을 더욱 부채질하는 거지요. 이젠 정책을 보고 인물을 보고 후보를 뽑는 선거풍토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제목: 많으면 많을수록 댓글

불을 보듯 뻔한 불행을 자초하긴 싫네요. 결혼하면 한 이삼년간은 뇌에서 도파민이 증가하여 내 병에 좋을리 없을것이고 그 이후에 생길지 모르는 자식들에게다가 가정을 이끌어가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병의 재발을 일으킬 수 있죠. 물론 결혼이 육체적 결합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막연한 환상만으로 모험을 걸기엔 너무나 많은 위험요인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첫째, 저의 상태와 제 처의 상태가 같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협화음, 즉 제 병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처라면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어렵다는거죠. 어느날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가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를지도 모르는 모험을 감수해야할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평생 지병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관찰하며 잘 지내면야 좋겠지만 지난 병력을 보았을때 쉬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둘째, 남편은 잘못된 교육문화로 인한 발병원인으로 평생 지울수 없는 자신감상실을 가져왔는데 그건 쉬이 치료될 수 없는 뇌이상학적 병이란 것이죠. 언뜻보기엔 정신의 병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진부한 충고를 하실지 몰라도 육체적인 이상보다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상황이 결혼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셋째,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설사 어떻게해서 자신감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강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약부작용에 끊임없이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게 다시 자신감 상실을 가져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이런 장애 속에서도 뜻깊은 몇가지는 이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퇴후 수년간을 헤매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해 합격했고 큰누나의 권유로 수능을 보아 전문대에 입학하여 어렵게 약부작용을 이겨내고 졸업했죠. 그 다음 몇번 병의 재발이 있었고 2년에 가까운 공공근로사업참여, 그 뒤 좋아했던 컴퓨터 공부를 계속하여 2004년 겨울 동네직업학교 웹디자인과를 수료하여 아버지 사업도 도와드리고 현재는 그 다음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사리 일손이 잡히지 않네요. 아버지 일은 제가 당신 생전에 꼭 해놔야한다는 일념이 있어 어려운 가운데 해내었지만 정작 내 자신의 일은 한없이 나약하기 그지 없네요. 어떻게 보면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자아실현에 가까운 것인데 그 규모와 크기에 놀려 옛날 고등학교 학업스트레스마냥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 된거죠.

상황이 이런데 꿈을 접고 결혼을 해야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치열한 현실에 놀려 병이 재발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을 마칠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도 뾰족한 묘안없이 계속 놀고 있지만 말입니다. 제 사정이 대충 이렇습니다.

제목: 노무현 선거결과 댓글

저도 이번 선거결과에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블로그 저널리즘의 침체 원인을 기성 정치권 전체에서 찾았기 때문에 여당이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잘한 부분도 많지만 교육정책과 실업정책에 있어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여당에 반대하는 언론들이 방송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많았지만 정작 여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는 조용했던 것이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소통할 통로가 없었던 것이죠. 이건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여당 내에서도 경계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즉 수월한 통치를 위해선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역효과를 불러 일으킨 겁니다. 여당이 계속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네티즌들과의 연대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믿고 뉘눌수 있는 칼럼이나 블로그, 기타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진정한 지지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지금 포탈은 네티즌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누군가가 진정으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인터넷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축적된 파워를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3의 자(정부, 기업, 네티즌이라고 치면 네티즌이 되겠죠)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축적되는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고 포탈도 역시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네티즌들 중에 누군가가 정직한 뜻으로 의사소통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정직과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지방선거 독후감 댓글...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다 놀고 있는데 개혁을 다 이뤘다니요 박대표라도 전 제 뜻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 분을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죠.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보았을때 말이죠... ^^;

제목: 열린우리당 참패 댓글...

동감하는 바와 함께 덧붙일 것은 전략의 실패도 있다고 하더군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표가 갈라졌고(물론 합쳐도 안되는 지역이 많았지만) 참여정부 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별로 반영 못했던 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과 실업정책, 교육정책이었지요. 이 셋을 보았을때 한마디로 이전 정권과 차별화

된 정책이 없었고 소리만 요란한 부동산정책만이 주를 이뤘던것 같네요. 그것도 실질적인 처방이 아닌 세수목적의 처방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리고 여당에 우호적인 미디어 언론이 없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을 지지하는 많은 수의 네티즌들의 의사소통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저도 과거 블로그에서 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은 거의 글을 쓰지 않았고 다른 블로그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도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네티즌들(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국민들)과 연대해야만 그 가능성을 계속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간의 소통이 끊기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번 선거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제목: 북파간첩 댓글

연예계에 붙어 희희낙락하며 콩고물이나 얻어먹다니요, 좀 알기 쉽게 풀어 주시죠. 도무지 내용자체가 어려워서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북파간첩을 얘기하시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그런 분들끼리 뭉쳐서 피해보상요구를 정부쪽에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싶네요.

제목: 노무현의 비방 댓글

제가 보기엔 여기 나오는 토론들이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열우당과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을 놓고하는 토론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우리, 이제는 지역을 아우를수 있는 인물을 옹립할 순 없는 건가요? TV에서 보니까 고건총리가 어쩌구 저쩌구, 박근혜 씨가 어쩌구저쩌구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몇십년이 가도 그 고질병 고쳐지겠습니까? 노 대통령은 광주노씨라 싫고 박근혜씨는 경상도라 싫고 고건씨는 목포출신이라 싫고... 전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네티즌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데 다들 왜이러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시네요.

제목: 북파공작원 댓글

얘기인즉 같은 북파공작원들 중에 한사람이 북파중 사살되었는데 정부가 연금지급을 약속하고도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무리 고아출신이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되죠. 정말 나쁜 당국자들이네요. 제가 지급해 드릴 순 없고 같은 처지의 분들끼리 모여서 당국과 협의해 나가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제목: 아이낳기 댓글

똑같은 얘기 반복해봐야 결론은 다 똑같다. 주변여건이 허락하지 못하고 먹고살기 힘든데 얘기 많이 낳아봤자 원 소용이 있냐는 거다. 부모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 하신다. 우리가 너희들 먹여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글 자꾸 퍼다 나르지 말고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갑시다.

제목: 매소키즘 댓글

너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정권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이 정신이상자라니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그런 당사자가 아닌가 의심스럽군요. 저도 약은 먹고 있지만 당신처럼 과박한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시요.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매소키즘 운운하며 음란을 말하시는데 당신 여자나체 사진 한번 감상 안해봤습니까? 과거 부산, 경남일대가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되는 각종 음란물의 온상이었다는걸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너무 남의 얘기처럼 말씀하시네요. 이제 상대에 대한 혐담은 그만하고 제발 정신좀 차리시요. 약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척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말 함부로 지껄이지 마시요.

제목: 참패원인은 무능

제 생각엔 무능했다기보다 국민들 의견을 무시한채 완성도 높은 개혁과제를 완수해내

지 못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할듯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세수위주의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고 교육정책은 별로 변하게 없으며 실업정책은 통계수치 운운하며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죠. 또 한가지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많은 수의 네티즌들을 음란물이 판치는 이런 위해포탈에 몰아넣어 국민들을 정치적 무관심에 빠트리려고 했다는 점이죠. 저도 다음과 엠파스에서 활동하던 블로거였는데 엠파스 같은 경우는 블로거들이 축적해 놓은 블로그 소스에다가 하나둘씩 장난을 치더군요. 그런 치사한 방법으로 블로거들을 분열시키는 파렴치한 정권인지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포스를 비롯한 교활한 인터넷 포탈 정책에 주의합시다.

참고로 이곳 하나포스에서도 게시판 소스상의 장난이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제가 하나포스 인터넷 해지를 걸어놓고 여러번 싸워왔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군요.

제목: 천리안 팝업광고 횡포를 신고합니다.

아래는 어제오늘 정부기관이 쉬는 동안 천리안이 우리 이용자들에게 저지른 팝업광고 횡포에 대해서 오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천리안이 사용자 윈도우환경 작업표시줄에 악성팝업창을 여러개 띄우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신고했습니다만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렇게 증거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계법령에 근거해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리안이 광고수입을 위하여 띄우는 새창띄우기(5월3일과 4일, 6월12일 GSestore란 쇼핑몰 이름의 빈 팝업과 자동광고창생성팝업)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리안 창을 닫으면 광고화면이 하나 뜨더니만 이젠 아예 클릭할 때마다 여러개의 빈 팝업창을 띄워 사용자의 작업관리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개의 창을 닫으려면 일일이 창을 선택해 닫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엄연한 개인컴퓨팅 생활 침해이며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바 하루빨리 관련법규에 근거해 이를 완전히 근절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천리안은 지능적으로 경찰서나 정보통신부가 쉬는 주말이나 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말 혹은 밤에 집중적으로 광고팝업을 띄우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익스플로러 상의 HTML 소스상에서 새창띄우기 기법은 별도의 승인 없이도 실제로 구현 가능한 코딩방법이고 XP SP2 상에선 팝업차단 기능으로 제기능을 못하긴 하지만 일반 98사용자나 2000사용자들에게 아주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즉 정통부에선 천리안의 팝업광고를 예의주시하여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첨부한 자료중에 choi_add.jpg 의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이 무차별하게 띄우는 광고팝업을 나타낸 것이며 나머지는 index소스와 해당 팝업을 띄우는 html소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temporary폴더에서 찾은 것이며 잘 분석해 보면 windows.open() 스크립트로 새창을 띄워 창을 닫을때 광고를 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해 주십시오.

[근거법령]

영리목적 자동광고성 프로그램 설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을 제50조의5를 확인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처벌로서는 동법 제67조에 과태료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목: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편견에 대한 댓글...

[출처] 천리안 게시판

http://plazabbs.chol.com/bbs/bbs.php?p=read&s_category=a&PN=2&us=plaza&bs=word2&uid=12254

하나포스는 왜 게시판 본문쓰기에서 "h r e f" 태그를 금칙어로 넣었을까요? 참 속보이네요...연결을 시킬려고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님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신장애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군요. 정신장애도 초기에 발견하여 약물처방을 해주면 요양원에 들어갈 필요없이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글도 잘 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게 거들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한쪽으로 씹으시는데 진짜 장애인이라면 그런 무지에서 나온 말씀을 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TV에선 정신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성적착란에 빠진 사람처럼 빔대어 나오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법 없이도 살만큼 순진하고 성관념에 대해 무척이나 엄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언론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행동의 불능상태가 수년에 걸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가 정신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이 바른 장애인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은 재발이 반복될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정신장애인들은 요양원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집단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재발이 일어났을 경우, 초기의 재활치료이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면 다른 일반인들처럼 작은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사회적응훈련이 가능하도록 주변에서 이끌고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일반인처럼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시간시간 글을 쓸 수 있는 활동력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만 지도하고 관리해주면 그 사람의 많은 능력을 여생을 통해 발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들을 바라봐야 하며 특히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근원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들이 정부시책에 의해 정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들의 의식이 변화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제목: 이통사들의 횡포

무슨 말씀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현재 무선통신사들이, 인터넷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이용할때 비싼 회선접속료와 콘텐츠사용료를 이중으로 받아채기고 있습니다. 콘텐츠사용료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구요. 어떻게 보면 접속료를 받고 있는 이상 PP들의 지분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핸드폰망을 통한 독점적 서비스이다 보니까 무선통신사들이 자기들만 배불리 먹겠다는 못된 심보지요. 결국 비싼 접속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통신사와 PP간의 부당한 사용료 배분으로 사용자들의 통신요금만 비싸게 나오는 형국이지요. 정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인터넷 119

천리안이 광고수입을 위하여 띄우는 새창띄우기(5월3일,4일 GSestore란 쇼핑몰 이름의 빈 팝업)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리안 창을 닫으면 광고화면이 하나 뜨더니만 이젠 아예 클릭할 때마다 여러개의 빈 팝업창을 띄워 사용자의 작업관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개의 창을 닫으려면 일일이 창을 선택해 닫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엄연한 개인컴퓨팅 생활 침해이며 관련법규가 없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바 하루 빨리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이를 완전히 근절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천리안은 지능적으로 경찰서나 정보통신부가 쉬는 주말이나 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말 혹은 밤에 집중적으로 광고팝업을 띄우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익스플로러 상의 HTML 소스상에서 새창띄우기 기법은 별도의 승
30 페이지

인 없이도 실제로 구현 가능한 코딩방법이고 XP SP2 상에선 팝업차단 기능으로 제기능을 못하긴 하지만 일반 98사용자나 2000사용자들에게 아주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즉 정통부에선 천리안의 팝업광고를 예의주시하여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증거자료는 제가 그 당시 그 시점에 긴박한 장면의 캡처를 하지 못해서 이후로 사이버경찰청에 진정을 낸후 천리안 담당자와 통화를 한후 개선되었지만 혹여나 발견하게 되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119에서도 천리안 "나도한마디"란을 예의주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가끔씩 한두개의 팝업만 뜨지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날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팝업 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광고팝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개인생활침해이고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 및 처벌법규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역사적 진실은... 댓글

6.25는 우리 남북한간의 전쟁이었지만 이는 곧 다른 체제간의 전쟁이었으며 백성들이 원치않는 한민족간의 총겨누기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일본에 의해 지배받던중 2차대전을 종식시킨 제3국들이 개입된 신탁통치의 산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젠 전쟁도 끝나고 전세계가 한장소에 모여 월드컵을 개최하는등 세계 각국은 한울타리로 더욱더 가까워지게되었습니다. 군비증강과 평화무드는 엄연히 대립되는 조치입니다. 물론 굳건한 안보수비가 중요한건 사실이지만 같은 동포인 북한을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주적으로 표현하고 무분별한 군비증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전세계가 거대문명으로 하나가된 지구촌이 이젠 더이상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로 얼룩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끈기있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에 따른 자위조치를 취하되 전세계평화구축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전쟁용사들에 대한 서운하지 않은 대우 또한 당연히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비태세도 중요하지만 그에따른 확실한 정신무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쟁은 언뜻보면 힘과 도구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올바른 군철학과 개인들의 신념, 국가와 개인의 정직한 이해의 바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전투태세와 더불어 과학적인 전투력이 더해질때 강한 군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에서 보았듯이 물량공세를 펼친 미군을 상대한 많은 군인들의 전투태세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서투른 장공이 연장나무란다고 진정한 전투력은 좋은 연장과 함께 올바른 군인정신, 그리고 훌륭한 전투기술에서 나온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바로 인식해 우리 군인들의 전투태세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위협요인도 대비할 수 있는 안보수비를 이뤄낼수 있을거라 봅니다. 이론적인 것이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칩니다.

제목: 노대통령 개혁 댓글

노대통령의 대표적인 말이 요새 그거였죠. "저항없는 개혁 없다!"
네티즌과 국민들은 어떤 것이 개혁이란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것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공무원집단 편에 서겠다 뭐 그 뜻이겠죠. 우라질, 나도 노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성명까지 썼는데... — — 저는 보겠습니다 노대통령이 국민들 편에 선 개혁을 하는지, 공무원들 편에 선 개혁을 하는지... 그것은 훗날 네티즌과 역사가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인터넷 강국 댓글...

정론님 정론님은 네티즌을 싸잡아 망나니쯤으로 매도하시는데 당신은 그럼 홈페이지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천리안에 글 올리는 게시판 하나는 만드실줄 아시는지... 전 비록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자신을 일단 바로

직시하고 남을 재단하십시오. 비록 한국 학생들 게임 좋아하지만 학원이다 각종 시험이다 사춘기때 원치않는 고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거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티즌의 이름으로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목: 인터넷 해지 쉬워진다.

참 제목만 거창하고 내용은 별거 없구먼. 결국 사용자들의 목을 조이는 각종 무로서비스에 대한 위약금과 장기할인약정에 대한 위약금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쓰잘때기 없는 내용만 늘어놓고 있구만요. 제발 정신좀 차리시요. 정통부는 뭐하나 이런 기사나 만들고 앉았고...-_-

제목: 노인들 복지

부동산에서 세금 많이 걸었으면 일못하는 노인들 뒷바라지 해야지 노인들 보고 일하라니... 이런 싸가지가 있나...-_-

제목: 실업률 하락

명목상 실업률은 그렇다고손 치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졌을때만 기사를 심지 말고 올랐을때도 관련기사에 하나쯤은 기사가 게재돼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교육지책이 나오겠습니까? 매일 좋은 소식만 듣고 나쁜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도 특집으로 다루면 좋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_-

제목: 미니스커트

이 기사 완존히 미쳤구만. 짧은 미니스커트에 대해 충고하는 것도 성희롱이라면... 남자가 여자들로부터 겪는 수치감은 그럼 뭐냐? 이런건 공평한 시각으로 다뤄져야 한다. 짧은 미니스커트로 인해 남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적 가해자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제목: 김병준 부총리

“BK21은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아니라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자금” 이대목이 웃기다. 지금까지 청문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BK21연구사업비 타내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저지른것이 드러났는데 너무 뻔뻔한 기사가 게재되었네요. 그럼 교수는 연구비 안받는다네 얘기인가요? 참 개도 웃을 일입니다. 공공윤리를 저버린 김병준씨는 모든 공직을 사퇴하라!!!

제목: BK21사업

이번기회에 BK21사업도 그 실효성과 진실성을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자르고 보강해야 한다. 이걸 뭐 교육부총리가 될 사람부터 교육제도를 이용해 편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_-

제목: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BK21사업의 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라서야 되겠는가? 중복 논문도 가려내지 못하는 유관 공무원들까지 이번기회에 확실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학계에 중복으로 게재된 논문이 있으면 사업비를 당연히 회수해야지 매스를 대야할 교육부 총수가 표절에다 둘러대는 꼴이란... 모든 공직을 던져라!

제목: 국민들 실망

이런 사람이 교육부총리 해봐야 BK사업 그게 그거고 맨날 이런일 재발하고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 체계 오히려 망친다. 학원열풍 분위기에 편법으로 자녀 외고 편입학시킬 때부터 이상하더니만 결국 이런 일로 국민들만 실망시키는구나...—_—

제목: 용팔이

제가 용산 상인들에게 나쁘게 받았던 인상은 조립하기 전에 CPU와 보드가 맞다고 하고 선 나중에 땀 소리를 하고 동작이 안되어 스펙을 변경하고 돈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잔한 부속을 빠뜨리고 소비자를 왔다갔다하게 만든다던지 불량키보드나 부품을 잘못된 것을 준다던지 해서 또 먼길에서 찾아온 소비자를 왔다갔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파는 사람들 입장에선 전자상가에서 앉아서 교환해주면 끝이지만 택배거래가 아닌 방문이용자들은 여간 괴로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구입때 키보드 같은 것들은 아무리 삼성 것이라고 해도 확인하고 가져오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용산에 가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자가용 주차료도 무자게 비싸고 오래 머물시 주차료가 엄청나옵니다. 대충 마무리해 가져가라는 뜻이지요. 못된 사람들이죠. 아직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팔이" 의 인상은 별로 나아진게 없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소비자를 왔다갔다 만들게 하는 상술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게해서 바꿔가기 귀찮게 하는 수법이지요. —_—

제목: 학원지상주의

입시지옥, 학원지상주의를 만들어 놓고 뭐? "교육정책불량률제로?"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 없나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게 더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시험지 몇장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 사람의 능력을 그것만으로 모두 평가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이 사회가 시험으로 인해 병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위 내용은 숲과 나무를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들만 나열해 놓은듯한 인상이 깊네요. 제발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손질해 나갑시다.

제목: 데인저 엔젤

예전에 뭐냐 그 듣기만 했던 동급생 같은 위험한 게임 아니가요? 저도 이런 게임은 안해봤지만 제목에서부터 일탈의 향기가 풍기네요. ^^ 일본은 세계에서 섹스리스로 유명하다면서 이런 게임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요. 썸~ —_—

제목: BK21사업 연구비

학계에 중복으로 발표된 논문이 BK21사업의 실적논문으로 중복 제출된 것은 무슨 이유 일까요? 교수가 얻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밖에 보이지질 않는데 김부총리가 통솔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군요. 제가 알기로 교수도 BK21사업 지원비를 일부 탄다고 들었는데...어떨습니까?

제목: 교수 연구비 지분

어느 언론지를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

김 부총리는 "BK21은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아니라 우수한 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이어서 교수가 받는 건 미미하다"고 했다. 그러나 BK21 참여 교수들은 "그래도 결국 연구비"라며 "BK21 수행과정에서 논문 편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고 전했다. 실제 BK21 사업 평가 기준(총점 500점)엔 연구비 관리(40점)와 교수 연구활동(50점) 등의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제목: 다나와 상품평

요사이 얼마전까지 다나와가 대거 개편되면서 각 상품에 대한 소비자평인 "상품에 대한 의견"란이 제대로 로딩이 안되는 현상이 계속발생하고 있다. 한두번 클릭하면 안 뜨고 대여섯번 클릭해야 상품평이 나오는데 이것 좀 수상하다.

다나와가 진정으로 소비자평을 활성화할 생각이라면 "상품에 대한 의견" 란을 이렇게 푸대접하지는 않을거란 생각이 든다. 비록 상품평에 악의적인 사용자의 의견이 없지 않아 있을거란 추측은 들지만 언제까지나 해당 의견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나같은 상품평의 일희일비에 쉽게 동요되는 소비자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상품평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어찌보면 제품정보도 거기서 얻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중요한 "상품에 대한 의견"을 로딩이 안 되게끔 소홀히 한다는 것은 다나와가 이제 소비자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리게끔 만든다.

이 내용에 대해 다나와에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으니 정말로 그런 것인가 스스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다나와는 진정으로 올바른 제품정보와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회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상품에 대한 의견"의 가중치를 우선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할 것이다.

제목: 우리가구 소득증가?

난 장애가 있어 직장이 없지만 부모님 일을 거드면서 형이 부쳐주는 돈 100만원으로 우리집은 생활한다.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난 결혼도 안한 상태여서 내가 집 안일을 꽤많이 돕게 되었다. 상황이 이런데 가계소득이 늘었다고 말하면 이해할수 있겠는가? 그런데다 어머님은 내 장애가 불투명하다며 절약을 하시고 난 최저생활을 해가며 이런데 가끔 들어와서 내 의견을 쓰고 있다. 통계 속이려고 하지말고 공무원들이 말하는 그 국민소득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렇게 노는 가구가 없어져야 하는것 아닌가?

— —

제목: 시민단체 의혹

참여연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배고프게 일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매도하고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안의 폭로에 있어서 의혹보다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며 PD들이 우리사회 보도언론의 핵심총인걸 감안했을때 참여연대의 대립각에 서 있는 위치의 신분에서 너무나 언론적 음해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다. 의혹에 불과한 사안을 판매본에서 삭제한걸 가지고 KBS독립 운운하다니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비록 여러 시민단체 가운데 참여연대가 그 규모가 크고 여러 조직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고 있지만 다른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생각해 봤을때 아직까진 그래도 이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언론으로 평가해도 무난하다는 생각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재를 위주로 하지 않고 대기업 생리를 파고들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변사람들로부터 괜한 의혹을 사고 있는 점도 바로 그것이고 말이다. 기업 지배구조정보판매도 그래서 나온말이 아닌가? — —

제목: 사행성 게임장

맞습니다. 아예 사행성게임장이나 피씨방은 인가되지 않도록 법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경품폐지나 투입금액 규제가지고는 어렵없는 일이고 정부부터가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기존 허가분을 서둘러 보상하여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 정말로 심각해 보입니다. 각종 속임수와 도박이 성행하는 사행성 게임장, 완전히 근절합시다.

제목: 블로거억제정책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사용자들은 블로그에 목말라 있는데 포탈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형태나 수준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속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완전히 네티즌 의견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한 개인이 어떤 글을 쓰면 그게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블로그고 칼럼인가? 내 조카가 사용하는 버디홈피만 하더라도 싸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열심히 꾸민 홈피의 방문자수가 형편없으니 이야말로 개인 미디어의 말살이다. 겉으로는 사용자를 모으기위해 블로그를 앞세우는것 같지만 뒤로는 그 잠재력에 움찔하고 블로거들을 탄압하고 있다.

블로그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각 개인들의 지식축적이다. 여기와 같은 게시판들은 지식의 축적이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언젠가는 삭제되고 말 것들이며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언론들이 과거 최초로 미디어를 이뤄냈고 정부가 최근 인터넷에 미디어를 구축했지만 개인미디어가 가장 푸대접받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인터넷문화의 퇴보다. 블로그는 또한 커뮤니티를 구축했지만 게시판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요사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기업/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블로거 억제정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답은 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선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제목: 전 공무원시험 안보지만 정말 불쌍합니다.

참 수궁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불쌍한 7080세대 70년대 세대의 전형으로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우리나라 실업정책보면 정말로 열받습니다. 완전히 인터넷 세대를 거지로 만들고 있죠.

사실 전 실업자들 공무원 시험에 붙여주는 것도 마음에 안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시험공부해서 공무원 세계에 입문하면 또 그 썩어빠진 집단 매너리즘에다 생산성없는 인력이 넘쳐난다는 자괴감, 그것이 또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 많이 뽑아서 발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은 IT업계에서 정말 비참한 조건을 끝까지 버텨내고 묵묵히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입니다. 저도 백수이긴 하지만 적게나마 동종 업계에서 돈을 벌며 종사하는 일꾼입니다. 거의 무료봉사도 많이 해주고 그랬었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과 싸우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나라 우리사회의 주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의를 다실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과연 공무원들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는가 다시한번 묻고 싶군요. 전 시험을 안보았고 앞으로 안볼 것이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만큼은 '시험지'라는 굴레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부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추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공무원 시험에 시험지가 없어지고 다면평가로 인재를 선발되게 되면 그게 각 기업으로까지 파급되어 지금과 같은 망국적인 입시지옥과 학원지상주의로 인한 교육비과다지출이 사라질수 있다는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제목: 주민세에 관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해

이번에 주민세를 내게 되었는데요 주민세에 관한 취지와 납부시기, 방법 그리고 기타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 불편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아도 없고 자치구 홈페이지에 가도 없는데 이거 당연히 올려놔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곳 국세청 홈페이지엔 있을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어느 구석에 쳐박혀 있는지 보이지

가 않네요.

국민들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걷어가는 세금이 있더라 말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하루속히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찾았던 정보는 일부 포털에서 네티즌들이 올려놓은 정보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기업홍피인 포털에서 정보를 찾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선 정보를 찾을수 없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가네요. 너무나 안이하고 부실한것 아닌가요?

제목: "바다이야기" 에 관한 국정브리핑 댓글...

어제 뉴스를 보니 조카가 성인오락실 게임기 회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만 했더군요. 적어도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며 이름값은 하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중요한건 이제부터.. 이런 사행성 퇴폐산업을 뿌리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애지중지했던 조카가 있지만 이 놈이 삼촌을 속이고 방자한 짓을 도맡아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노대통령님도 그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노대통령님이 진정으로 퇴폐성/사행성 성인오락기 사업을 뿌리뽑을 의지가 있으시다면 휘하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입안하고 청산작업을 마무리해 다시는 망국적인 성인오락실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실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카에게 했던것처럼 노대통령님도 그렇게 하셔야 국민들도 노대통령을 믿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저도 조선일보와 수구세력들이 조카와 노대통령을 결부시키려 하는것에 염증을 느끼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삼촌인 저는 조카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허나 조카는 그 뜻을 여러번 저버렸습니다. 노대통령께서도 노대통령 조카에게 깨끗한 오락문화를 위한 따끔한 일벌백계를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방금 인터넷에서 MBC뉴스를 보았는데 국회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들도 연루됐을지도 모르는 상품권발행 및 관계법령 입법에 있어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주장하더군요.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습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는 또한 문광부, 영등위(영상등급심의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돼 있는듯 보이니까 그 고질적인 인허가 비리도 제대로 척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허잡한 글들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구요.

제목: 사행성 오락 정말 뿌리뽑아야 합니다.

정말 사행성 오락 뿌리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간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 영등위에 가보니 업주들이 이번 취재에서 불리해지자 살려달라고 난리더구만요. 그래서 바른말을 했더니만 욕을 해대고 입다물고 있으라고 난리를 쳐서 대꾸도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 자신들 돈벌이에만 눈독이 든 성인오락실 업주들, 정말 이 사회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생해왔던 공무원들도 발본색원해서 같이 처단해야 하구요. 이제 우리 네티즌들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예전보단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많이 퇴보하긴 했지만 뜻있는 사람끼리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야 합니다. 개인미디어의 대중화, 민주화를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제목: 실명인증과 바다이야기...

여러분, 개인 사이트는 왜 실명인증이 안되는줄 아십니까?
이곳 문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는 실명인증과정을 삽입했더군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홈페이지구축과정을 마치고 작은 사이트를 만들면서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이트의 신뢰성을 위해서 실명인증과정을 삽입하려고 했더니만 실명인증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정부 주무부처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실명인증이 필요하니 그 소스를 가져다쓰게 인증해 달라고 했더니만 그 공무원 하는 말씀이 대형 법인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고 반문했더니 정보보호를 위해서 랍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인증과정이 은폐되어 있는 소스를 아무나 쓸수 없게 만들어 놓고 무슨 실명제 운운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정부나 언론들이 매우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정책이죠.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들의 신뢰성과 커뮤니티의 정확성을 위해서 실명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강권단체들끼리 이 인증을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버젓이 쓰고 있는 실명인증창을 개인사이트들은 하나도 못쓰게 막아놓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쓰는 소스와 개인사이트에서 구현되는 소스가 다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운운한다는 것도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얘기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건 보안상 문제가 아니라 모듈화된 소스를 누구에게 오픈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보통신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입니다. 지금의 IT 법제들의 현실도 그렇구요. 헌데 이번에 바다이야기 얘기가 터졌습니다. 한쪽에선 도박을 없애야 한다고 떠들며 홍보하고 나서는 실명제 처럼 다른 쪽에선 이율배반적으로 차별하고 허가내용과는 다른 불법적인 게임기들이 난립하는 현실,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허가권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할 정책인지 어떤것은 법으로 규제해서 막아야할 것들인지가 불분명하고 그저 일관성없는 규제책을 내뱉으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카멜레온식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을 허탈하고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네 공무원들의 생활방식이자 행정스타일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는 실명인증 소스를 모든 개발자들에게 연동시키고 사행성 게임기들은 허가해 준 만큼 책임지고 청산절차를 마련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혹여나 대중의 관심이 사그러들었을때 또다시 제도를 고치고 향응을 주고받는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조직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영화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종사자들 전체가 이러한 사행성 게임의 인허가 정책에 있어 지금까지의 관행에 젖어 국민들의 지탄을 일시적인 여론몰이로 밖에 인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자정노력들은 진짜로 일회적인 것으로 머무는 거품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부디 업계의 유혹을 뿌리치고 국민의 편에 선 정책을 단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목: 학제 개편

정말로 욕나올라고 하는데 참습니다. _ _ 학제만 바꾼다고 교육이 바뀌나요? 이제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이젠 조삼모사식 전시행정은 그만잡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시네요. 시험 위주의 선발방식을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 나가자구요. 교육부는 그걸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지금 시험지가 양산해낸 사교육 때문에 우리 사회가 피해해지고 있는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요...

제목: 아동소재 음란물 댓글

거참, 어렵게 썼는데 삭제하기요? 이계경 의원,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지 모르겠지만 숫처녀, 숫총각이 널려있는 세상에 아동포르노를 논하다니, 가소롭구만... 그것도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자격있나? 세상에 성(性)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

람 있소?

제목: 전시작전통수권이양

언제까지 외세에게 우리 국방을 맡길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북한, 중국과도 친분을 넓혀 새로운 동북아 국방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일본, 미국과 멀리하자는 뜻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우방국과는 계속 경제교류를 해 나가고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함께가는 국방구도로 어떤 외세의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북한, 중국과도 경제교류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는 재래식 무기전쟁이 아니라 경제교류를 지향하며 군축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어진력을 유지하되 대규모 희생을 불러올수 있는 국지전 등 전쟁을 최소화 하는데 동참하고 개발도상국 이상의 국가들간의 분쟁에 있어선 전쟁으로 이어 지지 않는 당사국들간의 긴밀한 경제제재와 협조로 군인들의 희생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전세계에 군축메시지를 끊임없이 견지해야 합니다.

제목: 사행성이란 도박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가장먼저 떠오르는게, 승부는 정해져 있고 기대값이 투자금에 훨씬 못미치는, 사기성 도박이란 것이다.

설사 누군가 돈을 먼저 댔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누군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을 것이 뻔하다. 그것이 가계경제를 좀먹고 국민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또 로또복권같은 수익사업 및 기타복권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행성 게임과 다를바 없다. 거기에 관련된 산업도 엄청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늘 침묵해왔다.

이제는 이런 사행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요샌 PC의 보급으로 인터넷에 우후죽순격으로 사행성 게임과 상품권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상품권이 아니라 도박을 위한 상품권이라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품격높은 도박이나 사행성게임이란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다이야기같은 물고기를 그려놓고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허탈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사행성 산업을 반대하는 이유다.

제목: 도둑이 드러니 개도 짖지 않더라?

청와대에 개 키우는 일은 없으실 테고 밑에 어느분 말처럼 국민들의 수준을 비양냥거리듯 말씀하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수준이 그정도밖에 안된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어제 저도 처음 그 뉴스를 듣고 대통령의 빈정댐이 또 드러난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일먼저 떠올랐습니다.

부탁드리오건대 평소 오해를 살만한 말씀은 가급적 조심히 행동해서 해주실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나 네티즌들이 그 뜻을 헤아렸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는 안봐도 뻔한 일이며 동지에서 알을 밀어던지는 뺨꾸기 이상으로 대통령을 매도했을 겁니다. 차마 입에 담지못할 그 이상의 용어가 떠오르긴 하지만 예의상 여기서 인용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앞으로 공식석상에서 자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목: 2030 재원 마련?

어이없는 기사군. 인구가 주는데 세금만 늘리냐? 누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뺨을 치는 지...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만 죽어나겠군. 공직계를 구조조정하는것이 순서이지 않은가? 먹을 것이 없으면 조금만 먹어서 살을 빼는 것이 순리지 더 쳐먹겠다고 버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한쪽에선 증세한다고 하고 다른쪽에선 증세안한다고 하고 이 놈의 기자들이 미쳤구만. .. 뭐 노대통령 임기말에 줄서기하나?

국공채도 그렇다. 지금 나라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공채를 계속 발행하면 그 알량한 OECD국가 비교로 불량채무국가를 따라갈 심산인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망국적인 사교육비문제와 교육제도를 손보고 세심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대적인 세입세출 구조의 개혁, 비리의 척결, 예산의 재편성을 통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금 하는 장애인정책 보면 하나도 믿음이 가질 않는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 세금 더 걷는다고 얼마나 더 달라질까? 내가 그렇게 그렇게 정교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정부는 코방귀도 안뀐다.

한마디로 공무원수는 못 줄이고 인구는 줄 것 같으니까 세금 더 걷으려고 꿈수치고 있는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것 같은디... 먼저 왜 인구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연구하는게 순서일것 같다. 아마도 좀 늦은감이...

내 생각엔 교육제도 및 그 문화환경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한 상당기간 이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한다. 내 자식 1등시켜봐야 거기에서 낙오되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 사회를 수월치 않게 한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 그건 말로만 되는게 아니다. 더불어 아픔을 나누고 더불어 나눌 줄 아는게 더불어 잘사는 사회다. 지금과 같이 경쟁이 심화된 학교사회에선 아무것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정작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왜 순서를 매기는 교육이 잘못됐는지 얘기해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무슨 아픔이 있는지도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책담당자들이 공직계 전체를 구석구석 살피고 재점검해 우리 사회의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 당연한 거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하지만 이런 내가 나쁜만은 아닐 것이다. 그게 문제다.

제목: 무궁화 5호

발사체도 외국에서 제작되고 위성제작사도 외국업체 이름인것 보면 관제만 우리가 하는것 같군요. 누구 자세하게 아시는분 있으세요?

제목: 영등위 로비스트 체포

청와대 행정관, 뇌물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업자, 브로커등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해 이 사건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서 연루된 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번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에 공헌한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대통령이 큰 포상을 내려야 한다.

제목: 도박 단속 위해 재정 투입

단속만 할게 아니라 관련법도 정비하고 도박이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근본적인 처방을 함께 가해야 합니다. 도박은 불법이다란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단속이 아닌 영구적인 처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도 적게들고 효과적입니다.

제목: 중앙행정 기관 및 지자체 통화중 멘트가 이상합니다.

제가 이따금 중앙행정 기관 및 지자체에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받는 분이 담당부서의 직통전화를 알려주어서 전화를 해보면 통화중일때 예전에는 '뚜뚜뚜' 울리다가 요사이 는 '통화중입니다. 계속 기다리시려면 별표를 누르십시오' 하는 자동응답 안내멘트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좋아졌구나 하고 별표를 눌러보면 이상하게 기다려지는게 아니라 전화가 뚝 끊 기면서 '뚜뚜뚜'하는 썰렁한 소리만 나오더군요. 이게 예전에는 개의치 않게 생각했는 데 얼마전 서울시에 민원전화를 하면서 어느 공무원께서 저희집에 전화를 하시고선 전 화했었냐고 물으시길래 내가 전화번호도 안남겼는데 발신자표시로 전화를 하신걸 알고 이 통화중 멘트가 메시지를 남기라는 소리인지 기다리라는 건지 도무지 의미가 서로 mismatching되고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일을 제가 최근에 여러번 겪었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민원을 정직하게 받고자 한다면 통화중 멘트가 의미 그대로 기다려질수 있게끔 정상화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뚜뚜뚜' 통화음을 사용하시던지요, 이건 뭐 기다리게끔 배려하 는 것도 아니고 꼭 잘못된 통화중 멘트인것인양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그럼 쏘 행정부서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길 기대하면서 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비전 2030

맞습니다. 정부는 당장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이전에 지금 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 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 고쳐나가야 합니다. 당장의 먹기좋은 떡을 그리는 것은 사 상누각과 같은 것이어서 금방 바닥이 나기 마련입니다.

제목: 게임대회 우승

전세계게임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정말로 장한 일이지만 이것이 자칫 아이들에게 게임 으로 이 세상과 승부할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 세상 엔 게임외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들이 널렸다. 아이들을 협소한 오락세계에 빠트리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오는 폐단은 최악의 케 이스다.

제목: 내가 비전2030을 의심하는 이유

난 32평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5세 정신장애인이다. 왜 장애인이고 하 면 고등학교때 치열한 학업전쟁에서 적응하지 못해 정신병으로 중간에서 낙마했다. 그 뒤로 난 여러번 병의 재발을 겪었고 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긍정 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난 그당시 수학을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놈의 대입시험이 여러과목을 잘 해야 하는 압박감으로 다가와 결국 그것이 수업파행을 가져오고 결국 중퇴와 정신분열 병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고 말았다. 내가 왜 병을 갖게 되었는가, 유전적 요인은 없 었는가, 성(性)에 대한 무지 속에 왜 재미없는 수학공부에 매진했어야 했는가? 난 스 스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내가 좋아하는 전문대 전공과정을 어렵게 마치면서 그 해 답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병원을 다니면서 컴퓨터를 계속 혼자 공부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 전에 없었던 이 상한 부작용이 엄습해왔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부작용, 스트레스만 받으면 머리에서

신경전달물질과 약물이 반응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집중력이 고도로 예민해지는 증상이 계속됐다. 그런 상황에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간 휴식을 취해야 했다.

내가 발병한건 1990년도, 장애3급 판정을 받은건 2000년도 1월 말이었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재발로 입원을 반복하며 심성은 많이 황폐화되었고 투병중에 얻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한때 나는 예전보다 많이 강해졌음을 느낀다. 그러나 잠시 2001년과 2005년도에 다시한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을 겪으면서 근 15년동안 병에 대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해 보았지만 결론은 다른 일반사람들과는 달리 상상하기 힘든 경험을 하면서 심적으로 강해지면서도 한편으로 쓰러졌던 자신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즉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면 곧이어 부작용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업무스트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돼 또다시 직장에서 낙마하고 마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 가볍게 하는 홈페이지 제작 정도는 할 수 있었기에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며 지금까지 항상 컴퓨터를 가까이해오며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의 사회경력은 한 1년여남짓, 사회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내가 가장 많이 몸담았던 공공근로에서조차도 나의 장애경력 알필요도 없었고 아무도 의심치 않았기에 난 일반인들과 똑같이 취급되었다.

정부정책에 있어 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 하면 꼭 발을 못쓰거나 말을 못하는 등 눈에 보이는 장애인들만을 생각하기 쉽상이다. 하지만 이런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나와 같이 병으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등록, 비등록 장애인들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과 달리 그런 장애인들이 어떻게 불편한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까마득하게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온바른 장애인 정책이 만들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비전과 배려 그리고 정책집행이 이뤄질때 비로소 이들의 경제활동력은 소생할 수 있다. 이들이 집에서 그냥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들도 일반인들과는 달리 돈보다는 자신의 꿈을 키우고 능력을 살릴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를 위한 자신의 한맺힌 꿈을 조금이나마 실현하고 죽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럼, 그런 이들을 위해 사회와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렇게 미래가 밝은 한 국이라면 내가 왜 비전2030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정책의 신뢰를 쌓은 방법은 딱 한가지다. 이 사회의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부터 세입세출회계나 공문서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나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에게 땀땀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라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들에게나, 일터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에게나, 정직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나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한국 2030비전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산내역 중에서 골라 의료부문이나 노후보장, 장애인소생정책 등에 쓰면 그야말로 설득력 있는 비전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비로소 추가부담이나 구조조정이냐 하는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고, 비록 내가 장애인인긴 하지만 힘들게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인구증가율둔화문제와 맞물려 있는 공무원 효율성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그런 과정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현재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하기에 정부도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더 많은 투명성과 정책적 성의를 이전단계에서 보여줘야만 한다.

제목: FTA협상

방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알다시피 미국은 강력한 반덤핑 규제를 무역국에게 적용하

고 있다. 이번 FTA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거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본다. 매년 일방적인 반덤핑 규제에 묶이고 그네들 상품만 무관세 개방하면 그런 불공평한 무역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건 바보같은 짓이다.

제목: FTA 협상이란

FTA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협상력 있게 우리 것과 그네것을 맞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 쟁점이다. FTA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용으로 의심받기 쉽고 이야기의 논점을 흐리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FTA협상은 당사국간의 개방품목과 관세를 조정하는 문제다. 협상력있게 서로 밀고 당기며 공통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FTA에서 반덤핑 관세는 반드시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논의되는 시각들이 단순히 FTA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뜨거운것 같아서 몇자 적어봤다.

제목: 로또 승률조작

개인적인상념이지만 이번에 사행성게임파문도있고해서 많은수의 1등당첨자들을 배출하기위해 1등당첨번호를 조작한건 아닌지..당첨번호의특성이 지난번과비슷하고 중복되는 숫자가 유난히 많은게 좀 수상하다.그래야 다음에 더많은 로또복권 응모자들이 나올것 아닌가?바다이야기나 로또나 사행성산업은 다 그렇고그런게 아닌지.승률조작해서 대박 터트리고 나중에 판돈몰리면 싹거뒤가고. _ _

제목: 정부 홈페이지 1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보공개와 사용자 메뉴 인식성 면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 기능위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추가해야 하는데 잦은 유저인터페이스 개편과 화면메뉴의 이동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원하는 메뉴를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저인터페이스 같은 화면의 변경은 껌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시효과만 높지 실제적인 업그레이드 효과는 낮다.

제목: 반덤핑 관세 협상대상 아니다.

어디서 그러더라 우리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저가의 농산물에 대해 덤핑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그것도 FTA협상에 있어 설득력 있는 의견이다.

제목: 한국인 미국수학경시대회 1등

나도 수학을 좋아했지만 이런 애들 보면 정말 머리가 좋은것 같다. 창의적 수학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기량을 갖고 닦은 사람은 과학자로서의 기본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다.

제목: 국회 문광부 질의 답변

지금 국회방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방송 문화관광부 장관의 태도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로 일관하는데 그런 눈가리고아웅식의 답변으로 대충 넘어가려 하디니 정말로 한심하다.

문화부 장관은 성의있는 답변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것이다. 마치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인상을 질게 준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은 경품을 축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 나쁜 습관은 싹을 잘라야지 남겨두면 다시 재발하게 된다.

문광부가 매스를 대는걸 두려워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문광부를 신뢰하지 않고 의심할 것이다.

제목: 비전 2030 노대통령 회견

비전2030을 해야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설득력있는 공론화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희 동네는 재산세 걸어서 몇십층짜리 구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게 문제입니다.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 일목요연한 세입세출회계및 공문서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가부담이나 구조조정이냐를 따져야지,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애인이나 저소득 1인가구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미래 청사진을 하느냐마느냐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체벌

자기 자식 버릇 없고 교육 못시킨 건 생각않고 체벌한 교사만 탓하는 것도 문제다. 요새 학부모들 자녀가 한둘이다 보니 너무 애지중지해 키우는게 자식들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벌은 꼭 체벌이 아니다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학생을 위한 교육지책인 경우도 많다.

나도 과거 일부 체벌 교사들이 생각나곤 하는데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성적 떨어졌다고 때리고 아무 이유없이 때리는 교사들을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맞아야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내 생각엔 그 당시 우리사회가 너무나 군대식 교육이 팽배해 있었던것 같다.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제목: MS보안정책

헐~ 난 지금까지 보안결함 있다고 다 패치했다가 컴퓨터 망가뜨렸다. 보안구멍 찾아내는 프로그램까지 돌려가며 다 막았는데 누가 해킹해서 파일시스템을 망가뜨렸다. MS의 보안정책이 이렇다. 믿을 수 없는 MS보안정책...

물론 보안권한을 해킹한 거였지만 내 경험으론 보안패치 그다지 실효성도 없고 깔아도 근원적인 구멍은 늘 열려있었다. 윈도우 켜는 것 자체가 누가 다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이중 방화벽 그딴거 하나도 소용없다.

제목: 일본 핵무장

북한의 핵무기를 어디서든 "대량살상무기"라 하더라. 이런 핵무기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들까지 덩달아 나도 하자고 나서면 정말로 동북아는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되리라는 것은 안봐도 뻔한 일이다. 참을성 있게 북한을 설득해 나가자.

제목: 작통권 환수

작통권 환수의 정당성을 굳이 반복해 말할 필요는 없다. 이전 정치인들이 설사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시대적 명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젠 도냐 모냐는 식의 논쟁보다 어떻게 하면 동북아 평화질서를 공고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스스로 국방을 해나갈 생각은 안하고 언제까지 미군에 의존할 건지... 정말로 한심하다. 물론 의존해서는 안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때 우방국인 미국도 우리를 믿음직스럽게 볼 것이다.

제목: 그래도 미국은 우리의 절친한 우방이다.

이곳 게시판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근거없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음에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놀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작통권이 환수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그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지만 미군은 과거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절친한 우방이다.

북한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을 매도하고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미간에도 서로 마찬가지로. 서로 접점을 찾아나가고 이해를 구해야지 핵문제가 되고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감정 금할 수 없다.

북한은 우리민족과 가까우면서도 미사일을 수출하고 위폐제조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적 망신국가다. 그래서 더욱이나 미국의 눈밖에 난 나라지만 북한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핵무기 제조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계속 돌발행동을 하다가는 한국에서만은 참을성있게 기다려줄지 몰라도 일본이나 중국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러다가는 정말로 한국을 제외한 동북아 및 전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고립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친북세력이 미국을 적대시 하고 친미세력이 북한을 혈통하는 등, 이분법적인 사고는 21세기 미래지향국가에 적합하지 않은 사고방식이다. 이젠 미국과도 친분을 강화하고 북한과도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911테러 관련의 낭설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 밝혀둔다. 그리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패로 갈려 대립해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 글을 읽고 좀 자숙하고 이념과 패러다임의 틀을 바꿔나가길 권하고 싶다. 미국이란 나라도 우리처럼 선량한 국민들이 있고 나름대로 체제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이런 시각으로 국제교류를 이해하고 펼쳐 나가야지 체제를 이용하고 혈통고 이간질시키는 것은 세계평화를 저해하고 망가뜨리는 극악무도한 행위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명심하고 다들 국제사회에 있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하나둘씩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자.

제목: 비전 2030 본 보고서

제가 다운로드 자료를 죽 살펴봤습니다만 중복된 내용도 많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많아서 이걸 당장 해야한다고 설득하느니 보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지자체 세입세출상세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듯 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다른나라와 비교했을때 큰정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 구조조정할 때는 없는지 아님 추가부담이 필요한지 뭘 들여다보아야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할 겁니다. 정부의 세입운용, 방만한지 아닌지 그걸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영등위 통과 음란물 불법

뭔가 좀 이상하다. 영등위에 통과한 음란물의 배포가 유죄라니.. 지나치게 업자들에게만 불리하고 심사를 맡은 공무원들한테는 관대한 판결이 아닌지..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경찰과 법원을 믿고 사건을 의뢰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간다. 물론 음란물은 특수한 심사대상이지만 공무원들의 오심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란물을 심사 허가해주는 영등위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러니 바다이야기도 터지고 말썽이 자꾸 생기는것 아닌가? 이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이런 성토도 먹이지 않는 집단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렸단 말인가?

제목: 우리나라 상품 전략

맞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기업 상품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다양한 시장전략과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로 미국과는 기술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컴퓨터 부품만 하더라도 미국은 고품질 고가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은 너무 중간품질 중고가격대 제품이 많습니다.

제목: 아동 성수입국

매춘방으로 팔려나간 사람들이겠지요.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인들 자신은 성에 대해 몇몇합니까? 그네들도 뒤집어보면 다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지요. 이런 보도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성매매는 어디서나 있는 법이고 어떤 기이한 형태로든 표출되게 마련입니다. 혹 부처들만 사는 나라같으면 없을 수도 있겠네요. ^^

제목: 미 주정부 FTA 협상에서 제외하자

완전히 개념 싸움이군요. 미국에서 연방정부라 함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고 미국의 주 정부라함은 우리나라의 지자체인데 서로 법률적 구조를 검토해서 협상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듯 하네요. 우리나라 지자체는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률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렇게 접근해야죠.

제목: 약가 협상 파행

내가 지금까지 먹은 약값만으로도 엄청나게 그 사람들 돈 벌어줬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도움도 있었지만 보험 적용 이전의 원래 약가를 보면 아직도 무자게 비싼거 같은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다니... 돈도 못버는데 돈만 벌어가려고 하는 놈들.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이 중요한거다.

제목: 역사전쟁 200억 지원

정부에서 돈은 정말 물쓰듯 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것 같아 아쉽다. 올해에도 예산이 배정된게 있었을텐데 떠들기만 떠들어대고 알려진게 별로 없으니 이것이 바로 세금이 샌다는것 아닐까? _ _

제목: 실업재단에 가까운 백수연대...

전 처음에 뉴스를 듣고 백수연대라고 해서 백수들끼리 모여서 청장년실업과 장애인 실업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토론하고 행동해 나가는 단체이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예산정책과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실업극복국민재단이라... 좀 획기적이고 충분한 실업대안으로 와닿지는 않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물론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겠지만 세금의 지원을 받는 또하나의 산하기관(물론 비영리 시민단체라고는 하지만)이 만들어진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제 생각엔 지금은 단순한 정책을 홍보하고 계도할 때가 아니라 실업자들의 유형을 파악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엔 가정을 꾸린 실직자도 있고 1가구 1인 실직자도 엄청나게 많으며 심지어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장애인 실업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이런 산하기관이 조직돼서 단순한 정책홍보/연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토론하여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연구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조직이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비웃듯 흘러나왔던 백수연대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의 기구한 사연을 가진 모든 백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쯤 심각히 고민해 봤다면 좀 더 진지한 모색점이 도출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제목: 2006년도 나라살림에 관한 게시정보가 미비합니다.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재정마당에 2006년도 부처별 세출예산규모만 나와있지 세출예산규모의 세부내역인 공무원인건비나 사업비, 관사운영비 같은 세부지출계획이 나와있

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예전에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요즘에 들어선 그런 세부지출계획을 공개하시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지자체의 예산규모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기획예산처에서 한꺼번에 제공하시질 않아서 불편합니다. 그건 지자체에 직접 알아봐야 하나요? 여기엔 간단한 기금 수입지출 계획이 나와있지만 국민들은 아마도 더 자세한 수입지출계획안을 보고 싶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투명한 정부를 위해서라도, 비전2030의 선결과제로서도 이런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지자체의 예산지출계획 등은 반드시 또 자세하고 알기쉽게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지하상가 가스누출 진상조사 난항

시험가동하다 새어나온 가스 사고난뒤, 서둘러 막아놓고 발뽀한 사람이 있었겠지. 그런 사람 하나도 못잡나? 이건 순전히 경찰이 바보던지 지하철공사의 사건은폐가 아닐런지...

이건 적어도 해당 난방장치와 가스배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추궁해야 한다. 어젠 난방장치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냉온수기로 바뀌었네요. 뭔가 수상하다. 은폐의혹이... 환절기가 되면서 시험가동하다 사건이 터졌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제목: 자살 인구 증가

일반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적고통을 잘 모를 것이다. 여러 부류가 있지만 내가 아는 바만 말하자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비현실적인 지옥과 같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제목: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물러나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정치행각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적격성만 만족하면 되지 한나라당이 탄지를 거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헌법재판관 9명은 법률적 원칙에 따라 추천당사자가 따로 구분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틀린가?

이번 임동동의안은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소장인데 그거하고도 틀린데 한나라당은 왜 그럴까?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닌가? 단지 국회에 임명동의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이유없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참.

이건 뭐 너무 잘 생겨도 기분 나빠서 팬다더니 한나라당은 광패집단인가? 정말로 이런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단지 노대통령과 코드를 같이한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한나라당은 정당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마땅하다. 야당에서도 헌법재판관 추천하지 않는가?

그것도 여당이 단독 통과시키지 않고 합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거품을 물고 X랄이니 누가 한나라당이 옳다고 하겠는가?

제목: 기상청 홈페이지

나도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본 적이 있는데 흐린 날씨의 레이더 영상이 도움이 됐지만 날씨 예측자료가 없어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몇시간 단위로 변할 수 있는 기상자료를 보여줬으면 더 좋을걸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게 진짜 기술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약할 뿐더러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목: 칼럼과 블로그 문화의 퇴보...

요사이 칼럼과 블로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운영진 쪽에서 자꾸 특정블로그를 홍보하려고 하는 개입성에 있습니다. 블로그 홍보는 운영진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되고 고른 노출 속에서 네티즌들이 선별해 볼수 있도록 꾸며져야 합니다. 즉 운영진 입맛에 맞는 특정의 논지를 이끌어내려 하지말고 모든 블로거의 소리가 인터넷 세계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는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새로운 칼럼이나 블로그의 탄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포털에서 자꾸 파워블로거들의 외침을 제어하려고 하니깐 다시말해 상위클래스에서 이들의 노출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홍보해주고 묻어버리고 하는 횡포를 근절하지 않는한 블로그와 칼럼의 발전은 없습니다.

하나포스를 제외한 모든 포털들이 각 세부 섹션에 특정블로그를 추천블로그로 게시해 놓아 블로거들을 자기들의 제어권 안에 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거들이 열심히 작성하여 올린 새 글들은 맨 밑에서 다른 블로거들의 파상공세에 밀려 얼마간 게시되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칼럼이고 블로그입니까? 이런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등산하고 발뚎은 다음 자는게 더 이로운 일입니다.

묵묵히 글을 쓰며 조용히 외치는 블로거들을 홍보해 주지 않는 블로그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또 그 블로거가 회사방침에 반하는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언이라고 생각해야지 방해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아무도 거기다 좋은 글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고로 귀에 쓴 말은 약이 되고 귀에 좋은 말은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로부터도 간신은 좋은 말로 아부하기 좋아했고 충신은 언제나 고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털이 블로거들의 충언을 고깝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그 포털은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하나포스 블로그를 둘러보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칼럼과 블로그에 글을 쓰며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올려 봅니다.

<추신>

제가 근데 하나포스 블로그에서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전에 있었던 엠파스가 블로그에서 사용자의 블로그 DB에 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소스를 다른 포털에도 적용하기 위해 개발자가 그랬는지 아니면 개인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의 직접 내사방문으로 시정을 요구했던 일이 재차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폐쇄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저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열렬 블로거들에게 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인터넷 문화의 크나큰 퇴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도미노 작용의 나비효과를 노린 1인 블로그 파괴공작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당시 그일로 전 큰 충격을 받고 입원까지 하였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인터넷 민주주의란 대의명분이 기업의 욕심과 정부의 기득권력에 짓눌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강자가 민중을 통제하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사회입니다. 전 하나포스 블로그가 과거 다음칼럼과 비슷하다고 해서 또다시 그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글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전 제가 직접 만든 칼럼에서 혼자 외로이 글을 쓰지 못할 거라면 평생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 포털에는 다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칼럼이 만약 만들어졌을때 저의 정직한 이념을 믿고 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없더라도 실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동안 이런 게시판에서 글을 쓰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마음에 동요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꿈을 키워나가길 개인적으로 권고드립니다. 지금은 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고비만 넘기면 반드시 세상은 평온해지고 살기 좋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살면서 한가지 깨달은게 있습니다. 가끔 지금도 EBS에서 흘러나오는 수능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세상이 참 느리게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때 보았던 문제풀이방식이 2000년이 훌쩍넘은 아직도 학생들 대입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그 깨달음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제 이념을 실천하다 죽겠지만 이런 제 글을 읽고 누군가 릴레이 식으로 한 뜻, 한 방향으로 이어나가다보면 세상은 어느덧 조금씩 그쪽으로 변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먼 미래에 걸쳐 인류가 멸망의 길로 퇴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얘기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도 전 다시한번 제 생각을 이곳 천리안 게시판에서 다잡아 봅니다. 다들 건투를 빕니다.

제목: 일본의 동해상 방사능 오염조사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의 우리 해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인다면 당연히 우리당국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아무리 방사능 조사선이라고 하지만 공동 조사고 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제목: 당신은 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나?

의를 위해 투쟁하면 복이 있다? 말이 쉽군요. 당신은 복을 얻기 위해 의롭게 사나요? 당신은 의를 위해서 싸우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의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나요? 그리고 의를 얘기하다 헌법재판관 얘기로 새어 버렸는데 그렇게 자신있는 당신은 의를 위해 투쟁하며 죽을 자신이 있소?

난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의가 목숨만큼 중요하다는건 알고 있소. 그리고 목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말해주고 싶군요. 그런 말이 있잖소. 살려는 자 죽을 것이요 의를 위해 죽는 자 살 것이다. 당신은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요.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는 얘기를 남에게 함부로 지껄이지 마시요. 쉽게 의를 얘기하는 사람치고 의로운 사람 못봤소.

제목: 비스타 쓰실 생각 있으세요?

비스타 안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자질구레한 프로그램과 개발환경 심어놔서 리소스(자원:씨피유속도,메모리,하드) 다 잡아먹고 사용자들이 열심히 업그레이드 하면 몇년 못가서 보안 어쩌구저쩌구 하며 패치로 성능 다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만들고.. 각국에 카피본을 쓰거나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있으면 스페셜리스트를 작성해서 자체적으로 해킹감시하고..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MS내지 미정보국에 전송당하고.. 99% 사실, 장난 아닙니다.

단지 다이렉트X 10 때문에 우리가 비스타로 가야 하나요? 왜 XP나 윈도2000에는 그게 깔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을까요? 그리고 비스타는 64비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64비트 프로그램이 제작되기 시작하면 오버헤드코드로 인한 낭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개발환경도 아마 엄청나게 거품이 커져버릴 겁니다. 비주얼C++만 하더라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5.0으로 제작한거랑 6.0, .NET, .NET 2003 으로 컴파일해 제작한 프로그램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32bit 프로그램인데도 말입니다.

제목: 국회의 뻔뻔한 로비양성화 방안...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입법하더니만 이제는 국회에서 로비(~말이 로비지 뇌물이나 마찬가지다)마저 미국 운운하며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다 로비를 공공연히 받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받겠다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넘어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열린우리당의 여성위원이 제안하였다는건 남녀를 불문하고 국회가 얼마나 로비에 젖어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도 미국 운운하는 교활함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정치인들의 악습을 답습하겠다는 공언과

다름이 없다.

이런 게시판에선 국민들이 힘들여 공익적인 글을 써도 악성 광고 팝업이 난무하고 정치계는 로비로 썩어 있고 참 세상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젠 철면피 같은 뻔뻔함은 벗어던지고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제목: 타락에도 정도(degree)가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남을 함부로 재단하느냐는 말을 흔히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이 세상엔, 아니 이 우주엔 타락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예수도 타락했고 부처도 타락했으며 성모도 타락했다. 심지어는 알라가 신봉하는 태양신도 타락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타락의 정도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그들과 동격이 되고 싶으면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면서 타락의 농도를 엄청나게 낮추고 또 낮춰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우주의 섭리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너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재단하느냐고 한다. 너와 나는 엄청난 농도의 차이가 있는데 감히 너와 나를 동일시 한다. 이것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자 착각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의 타락상을 본다. 그것은 어찌 보면 큰 위상차를 두고 존재하는 신들의 세계에서의 타락상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허나 중요한건 모든 존재는 타락했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도 조차도 현격하게 타락하지 않은 자와 심각하게 타락한 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모두 현격하게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

제목: 국가채무

정부는 종종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말하곤 하는데 이제는 국민총소득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따져야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총생산(GDP) 같은 경우는 순수익이 악화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후자가 더 정확한 계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채무로 재정을 충당하려고 하지 말고 세출구조조정과 전산화, 조직의 재정비로 얻을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 즉 뱃살이나 군살을 빼라는 것이다. 우리는 중앙정부 한해 예산이 222조원이 되면서 주위에서 얻는 혜택이라곤 너무나 볼품이 없다. 여기엔 지자체 예산은 빠졌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 얘기는 다시말해 세금이 각종 국가기관 및 산하단체 운영비 밑으로 줄줄 샌다는 뜻이다. 이젠 피부에 와닿는 데에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싶다. 도로 공기오염이나 먼지 제거 같은데 또 사회취약계층 해소에도 예산을 좀 쓸데가 되지 않았나?

제목: 사행성 게임장 공방

등록제를 허가제로하고 자유영업에서 등록제로 바꾸면 뭐하나? 괜한 규제를 가해 로비(뇌물)만 성행하게 만들지... 전부터 얘기했지만 법을 뜯어고쳐 사행성 경품권은 아예 허가가 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사행성 게임장을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유착고리를 만들 수 있다.

제목: 용산 악덕 업체

헐~ 악덕업체를 만나셨군요. 저도 용산 바뀔라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불량부품은 물론이고 스피커 같은 것도 빼먹고 줍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고... 그리고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손해 안볼라고 하는 비양심. 거기에 전 예전부터 년덜머리가 납습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건 사람 몇번이고 왔다갔다하게 만드는것. 부품 구하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용산 왔다갔다 몇번 하면 녹초

가 되거든요. 다들 미리 준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맙시다.

제목: PC 유통 마진

우리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게 상품의 마진을 단순히 한번의 구입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제조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있고 도매업체, 소매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일정부분 따로 있다. 거의 대부분이 큰 손들이 도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마진이 높고 소매업체들은 마진률이 낮은 편이다. 즉 소비자들은 제조원가를 두고 여러과정의 유통을 거치면서 마진이 형성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이런건 용산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다나와에 형성된 가격은 소매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업체가 몇곳밖에 없는 상품은 대부분 단종되거나 재고가 줄고 있는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목: 장애인 예산(수당)

장애수당이 1700억원밖에 안된다니...헐~ 그것도 1~2급 중증 장애인들에 국한돼 있고 너무한것 아니예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몇명인데 현실을 알고 이런 예산을 책정하신건지... 너무 불공평하네요. _ _ _

아마도 장애인 관리 공무원 및 산하단체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닙니까?

제목: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참 시사점이 많은 뉴스군.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상당히 신뢰가 가는 뉴스다. 정부가 크고 작음을 떠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가대사를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문제는 체중은 많이 나가고 군살이 많은데 날렵하지도 못하고 힘도 세지 못하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는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나 문제는 그런 똥똥보가 관리하는 세금이 국민들에게 쓰이지 못하고 똥똥보라는 클래스가 찍어내는 또다른 객체(똥똥보와 똑같은 똥보들)들이 다 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환장할 일이죠.

제목: 공무원 노조결성 절대반대

정부가 불법이라더니 노동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주다니...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 사회에서 박봉에 허덕이는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생산직노조나 공무원들 같은 정규직들 노조가 강성하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과 국회의원님들도 결성된 노조에 가입하시지그래요. 참 이젠 구조조정을 얘기하니까 기득권 챙길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오호통재라!

이젠 공무원들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구만요. 국민들은 한끼 제대로 챙겨먹는 것도 버거운데 지네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니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널 노동부에 그 관계자란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직성이 풀리지 도저히 화가 나서 못참겠네요. 여러분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목: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 무슨 개소리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가 불법이라더니 노동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다니...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 사회에서 박봉에 허덕이는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생산직노조나 공무원들 같은 정규직들 노조가 오히려 강성하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과 국회의원님들도 다들 결성된 노조에 가입하시지 그래요. 참 이젠 구조조정을 얘기하니까 기득권 챙길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오

호통재라!

이 얘기는 다시말해 공무원들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국민들은 한끼 제대로 챙겨먹는 것도 버거운데 지네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니 정말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널 노동부에 그 관계자란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직성이 풀리지 도저히 화가 나서 못참겠네요. 여러분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녹봉을 앞에두고 노조를 결성해? 이 개X끼만도 못한 인간들아...

제목: 판문점을 다녀와서...

당신도 어용이구만. 국가안보, 정말 중요한 건 맞소. 하지만 북한과 분단된 현실은 우리민족의 비극이요. 당신의 글은 꼭 도끼만행 사건을 확대시켜 남북한의 신뢰를 일부러 무러뜨리려는 의도로 보이오. 괜한 시간낭비 말고 남북한이 어떻게 하면 협력하여 주변 열강들을 물리치고 세계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연구하시요.

제목: 저출산 해법

저출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꿈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한국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헌데 정부는 현실인식이 전혀 없으니 그게 더 큰 문제다. 꿈과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선 이 사회 내부 깊숙히 뿌리박힌 구조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목: 열린우리당 해체?

천만에요. 이걸 당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두터운 텃새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중엔 예전 김영삼 정권 때의 공무원들도 대다수 남아있고 모두가 울타리를 쳐서 철저히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한 집단이기주의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공무원 조직도 노조가 여럿 구성되게 되었네요. 심지어는 노동부에 '공공노사관계팀'이란 공식적인 공무원노조 지원부서가 신설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금을 포함해 한해 중앙부처공무원이 주무르는 나라예산이 239조원이나 되는데 장애인에 배정된 수당총액이 1720억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몇명인데 그것밖에 배정이 안되었는지... 전자와 같이 정부조직은 늘어만가고 예산만 계속 축내고 있는데 이런데는 도통 무관심하니 정말로 한심해도 한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애인 관련 단체 관서운영비나 담당공무원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제목: KTF, 공기계인 상대 쪽으로 메시지가 전송?

내가 스팸메시지에 하도 시달려서 메시지 기능을 고객센터를 통해 정지시켰는데 오랜 동안 그 상태로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사서함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전송실패'로 나오는게 아니라 '전송성공'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 메시지 '전송 성공'이 서로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장비셋팅을 통해 '전송실패'로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내쪽에서 메시지함을 막았구나 하고 생각함으로써 서로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런데 KTF는 기술상의 문제로 내 요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요사이 또 시달리고 있는 음성스팸에 대해서도 발신자표시거부로 들어오는 음성스팸전화차단을 기술상의 문제로 또 거부했다. 가뜰이나 요사이 전화도 안쓰고 전화도 안오고 해서 휴대전화를 해지할까 생각했는데 이런 스팸에 시달리다 못해 수익에만 눈이 멀어 하나도 성의있는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동통신사가 너무나 싫어서 어제 휴대폰을 해지했다.

구제책이라고 해봐야 060차단이 전부였는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란 국가 산하단체가 스팸신고를 별도로 받고 있었는데 그곳은 광고를 보낸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통신사에 직접 찾아가서 통화내역을 확인해 발신자번호를 추

적해서 번호를 알아내야 결국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았다. 그것도 일반인들에게 발신자표시추적이 아닌 발신자표시거부로 들어오는 전화번호까지 알려줄지는 미지수다. 설사 진짜 모른다고 하더라도 국가산하단체나 이통사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의 고충을 성의있게 들어 범국가적으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견 뭐 자기 위치만 고집하며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

아무튼 이런 문제로 난 그 사람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결국 핸드폰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해지된 핸드폰을 가져와서 휴대폰을 끄고 해지한 내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보니(엘지폰으로) 이게 웬일 여전히 메시지가 보내지는게 아니겠는가? 예전에 나도 메시지를 많이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이건 완전 사기다. 물론 개네들 말로는 과금이 안된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통신생활을 얼룩지게 만들 수 있는 엄연한 비정상적인 통신정책이다.

난 별로 핸드폰을 안쓴다. 나 하나 안쓴다고 별로 달라질것 없겠지만 이런 잘못된 행태가 빨리 고쳐지길 바라는 차원에서라도 후회는 절대 안한다. 정말 요새 벨소리로 걸려오는 휴대폰 스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하지만 정작 당한 한 개인에게 각종단체나 통신회사에서는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도움도 주지를 않았다. 그 많은 정보보호단체 홈페이지 있으면 뭐하나 그 운용비용으로 다른데 쓰는데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제목: 헌재소장 문제, 위헌여부로 가려라...

한나라당이 그렇게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를 걸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정식으로 위헌제청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쟁점인 전효숙 재판관의 임기 문제는 법조문에도 그리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못하고 합의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고쳐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근데 한나라당은 그러지도 못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 전효숙 재판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고만 하고 있으니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난 여당을 대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왜 정치권이 이런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정치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의견 있으면 답글을 주세요...

제목: 우리교육수출?

브라질 방문단이 온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교육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죄책감에 대한 변명으로 들리는군요. 주입식의 꼭두각시 교육으로 75%가 성공한듯 보이지만 25%는 재기불능의 낙오자들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5%의 전역자(?)들도 학교와 닮은 상명하복 군대식조직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음을 또한 명심하십시오.

제목: 작은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정부는 기금을 포함한 239조원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정작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데 그게 대부분 정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빠져나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정책비용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끝없이 정부조직은 새로 생기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다. 장애인 수당(UN기준 400만명에 총1720여억원)은 고사하고 주변환경정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게 바로 세금이 샌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목: [공무원노조] 뻔뻔한 언론과 공무원들...

왼쪽은 2006년 9월 22일자 KBS 9시뉴스에서 "예고된 사태였다"며 흘러나온 보도 내용이다. 이는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몰래 노조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어용언론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케이스였다.

어제의 "강제대집행" 이벤트와 KBS 보도는 한마디로 공무원들 노조가 법률적인 기반을 가지고 출범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선잡기용일 뿐이며 이것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몰래 추진한 언론과 공무원들은 정말로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들이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들도 대다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언론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운운하는 것도 한마디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어제의 "행정대집행"이라는 짜고치는 고스톱이자 눈가리고 아웅식 헐리우드 액션은 정말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뻔뻔함 그 자체였다.

국민들에게 공무원노조 설립이 합법이라는 과정도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았던 언론들도 한통속이었으며 국민적 합의 과정도 없이 IL0운운하며 분명한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데도 국제적 관례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노동부 관계자의 말은 한마디로 가재도 게편이라는 똑같은 놈들밖에 되질 않는다.

왼쪽 그림에서 위의 줄친 부분은 공무원 노조가 지나번 인터넷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합법적인 단체가 상당수 있음이 드러났으며 밑에 줄친 부분은 노조설립신고만으로 각종 공무원노조단체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동그라미 부분은 한마디로 한 술 떠 뜨는 노조들이 자랄을 하며 기선을 잡는 부분이고 밑에 작은 동그라미 부분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꼴가늠을 떠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노조결성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노동부 안에서 '공공노사관계팀'이란 조직이 결성된 때부터 이들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을 허용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단결권이란 노조단체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교섭권이 주워지면 실체도 없는-왜 실체가 없느냐 하면 사측이 있어야 하는데 여긴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노사간 협의가 가능해지고 법률개정으로 단체행동권까지 주어진다면 단체교섭이 결렬됐을때 집단파업이나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정부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도 이들 내부에서의 이기주의로 인해 번지는 불을 구경하듯 좌초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제 더이상의 비화(확산)를 막는 노력이 필요한데 뻔뻔스럽게도 법제처 및 노동부, 행자부에서는 교원노조를 선봉대로 내세우면서 이들을 공무원 노조의 자유설립을 허용하는데 이용하는 교활함까지 내보이고 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들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것인가? 필자같은 장애인도 돈 한푼 못벌고 세금 꼬박 내면서 하루하루를 골골하고 있는데 이들은 많은 근로자와 국민들이 벌겋게 두눈뜨고 있는 앞에서 이런 뻔뻔한 짓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행위가 계속 거듭될수록 결국은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239조원이란 돈이 어디에서 나왔나를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경거망동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길로 귀착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시대적 상황을 모르고 자기 뒀만 챙기려는 욕심쟁이들의 말로다.

제목: 내 컴퓨터 누군가 본다...

보안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무선인터넷 뿐 아니라 윈도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낡고 기는 보안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을 일일이 분석하지 않는한

내부비밀코드에 의해 해킹당할 우려는 얼마든지 상존해 있다.(Microsoft나 기타 정보국으로)

난 Microsoft나 보안기술자들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본다.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엿보고 마음대로 만지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난 오늘도 경험했고 전에도 크고작은 일들을 무수히 경험했다. 이런 행위는 중국에는 파멸뿐이다. 거기에는 분명 다양한 차원의 해커들이 개입되어 있겠지만 여러가지 해킹수법을 지켜봤을때 고도의 개입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행위들은 결국 개인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급기야는 최악의 사태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제목: 공무원 노조 강제집행 댓글

당연한 거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노동부 내 해당 하부조직이 만들어지고 법률검토와 수립이 암암리에 진행돼 왔던 것이죠. 노동부의 '공공노사관계팀'이 공공노사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을 다루고 있고 행자부가 법률적 토대위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받는 모양이더군요. 물론 각종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참여도 거기서 받아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재정지출 확대 댓글...

그렇게 말해도 입만살아가지고... 재정지출 확대해서 국민들 위한 정책 펴면 누가 반대하는가? 매일 쓸데없는데 주머니 차고 땀짓 하니까 국민들이 안믿어 주는거지...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라... OECD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이 크다고 우리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가령 다른 집 가정 씹씹이가 큰데 우리집도 그걸 따라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불성설 가지고 괜히 현혹하려 들지 마라. 국민들도 이젠 그 흔해빠진 저질비교 안 믿는다.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지출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런걸 가지고 새삼스러운 것 마냥 얘기하는 것도 웃기다. 강산이 변했는데 우리나라 재정지출은 안변했는가? 참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야지...

제목: 게임물 허가권 경찰청 이양

스스로 자정할 생각은 안하고 다른 관청에 떠넘겨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구조개혁이 아니라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군요. 참 공무원들의 일처리란...

제목: 한국 패트리엇 미사일 구입

요격 미사일과 핵미사일 Defense 체제는 차원이 틀리다. 패트리엇은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이고 핵미사일 같이 피해범위가 넓은 것은 높은 공중에서 멀리 요격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반도에선 이런 작전도 용이치 않다. 한마디로 이번 무기구입은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하는지 궁금증만 날게 한다.

제목: LG텔레콤 가입자 증가

엘지텔레콤 사원들 시켜서 주변 사람들 가입시키고 있으니 안놀올리가 없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서비스는 뺄점이다. 산에도 잘 안터지고 그렇다고 도시공간에서도 그리 잘 터지는 편은 아니다. 달리는 차도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뭐하나 좋은게 없는데 천리안이 지분관계가 있다고 띄워주고 있구만요. _ _

제목: 다음, 네이버 검색과 구글

저도 맨위 음냐님 의견에 동의, 구글은 검색범위가 넓지만 네이버 못찾아주는거 가끔

잘 보여줌. 제 생각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이 지식검색빠곤 상업성에 젖어 있어서 상업성 측면에선 신뢰성 있는 정보의 검색결과가 구글이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이트 검색 결과를 놓고 봤을때 유료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란 겁니다.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보나 사이트가 무료등록인 경우 검색결과에 한참 밀리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죠. 특정 검색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탈 자매사이트이거나 스폰서 사이트들이 앞에 나열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유리한건 지식검색 뿐인데 그것도 잘못하면 구글의 정확한 검색결과에 밀릴 수 있다는 애깁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지만 구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검색어 말고 구체적인 검색어를 넣어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언론을 믿을 것인가 포탈을 믿을 것인가?

MBC는 믿을만한 곳이 못되고 포탈은 믿을만한 곳이다라는 특정한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행태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도 체제는 지지하지만 네티즌저널리즘은 지지하지 않는다"와 같이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마술같이 섞인 카드를 보여주는 언론들의 행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언론이 월드컵에 열광하면서도 인터넷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째서 그 폐해만 지적하고 있는지 왜 포탈은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그 저의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토론인프라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미 기존 매스미디어는 과거 향수에 젖어 자신들의 언론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체제의 눈 밖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거처럼 자신들의 입김을 강화해나가려 할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호구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치권력과 매스미디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다름아닌 국민들 편에 선 네티즌의 목소리란 점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네티즌 목소리는 정말로 전국방방곡곡 울려퍼질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각종 포탈에 산재해 있던 블로그가 하나둘씩 反네티즌세력에 의해 편집되어 그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 축적 불가능한 이런 게시판만 남게 되었지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인터넷문화 측면에 있어서나 크나큰 퇴보입니다. 오히려 반네티즌세력의 저항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제 포탈 블로그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열렬블로거의 목소리는 태풍의 핵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게 폭발해 과거처럼 태풍의 회오리처럼 여론의 주도세력으로 불쑥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네티즌의 목소리가 가장 정직하고 믿을만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진단하는 매스미디어와 포탈의 구조적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전에 제가 여러번 댓글로 구술한 적이 있지만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매스미디어나 포탈이 마술같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카드 중에 어느것은 진짜이고 어느것은 조작된 것인지 구별할줄 아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란 것이 원래 가짜와 진짜를 섞어 여론을 원하는 쪽으로 이끌도록 지금까지 진화해왔기 때문에 미디어를 바라보는데 있어 이같은 관점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요근래 한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북한 미사일시험발사 보도에 있어서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과 "미사일 시험발사"라고 구분해서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도해 버리면 어느대상을 향해 미사일 발사를 한다는건지 국민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매스미디어는 인터넷을 믿을수 없는 언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마술이 진짜라고 선전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제목: 동북아 새 구도와 구상

내가 보기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러하다. 상기한 내용은 너무 과거 역사에 비춘 기개없는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개란 것이 하루아침에 딱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이 서로 공동군사협력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도 공동군사협력을 가지는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만큼 힘이 없는 나라도 아니다. 그리고 상기한 글은 너무, 한국인들이 반미군, 반미국을 외치고 있는것처럼 말하는데 많은 수의 국민들이 미국과 미국인을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며 미 정치인들과 미국인들을 엄연히 분리해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와 안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본다. 핵폭탄을 맞은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과 경제 및 문화를 비롯한 다방면으로 교류해 나가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일본도 알고보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유구한 역사속에 파란만장한 사연이 도사려 있듯이 어떤나라도 불량국가가 따로 있을수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우리 역사가 비록 과거 외침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과거일 뿐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안보체제가 이젠 절실하다고 본다. 우리가 과거 역사에 얽매어 우방국으로 지낼 수 있는 주변국들과 군비경쟁을 해나간다면 그것역시 위험한 행동일 것이며 동북아 안보에서 꼭 미군이 절대적 위치에 서야 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 절친한 친구는 한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명이 있을수도 있다. 절친한 친구가 여러명 있는 사람은 어려울때 더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줄 것이다. 물론 현재 국력으로 보았을때 상당기간 미국의 절대적 지위가 변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주변의 정세를 무시하고 일본, 중국 등과 거리를 두어서도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군사력경쟁이 아닌 경제를 주축으로한 무한경쟁시대이다. 또한 과거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이념이 대립하던 시대가 아니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 지구촌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 전세계 군비감축을 위한 공동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다.

제목: 축구 열풍에 대해...

난 어느때 부터인가 축구가 재미없어졌다. 왜냐하면 월드컵이다 뭐다 때가되면 방송에서 난리법석을 떨며 대한민국 연호를 외치는 것이 보기싫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sex 다음의 최대관심사인 축구로 몰아 국가주의의 최면에 빠지게 하는 방송들과 당국이 싫다는 뜻이다. 물론 국가의 존속을 위해 이런 이벤트가 가끔씩 필요하기에 월드컵이 생겨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때가 되면 억지로 떠들어대는 월드컵 소식은 정말로 속보이는 짓이다. 그것 말고도 인도네시아 강진사건을 계기로,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진안전점검을 더 심층보도했어야 옳다. 이젠 미래로 갈수록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일방적 대중매체는 쇠퇴하게 되어있다. 개인의 삶의질, 정신적 만족(쾌락보다 한 차원 높은 자아실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벤트와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미 그것을 구현해 낼수 있는 문명과 인프라가 갖추어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이 시대 최고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혼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 시간에 주입식 교육(TV 시청)을 받으려 하겠는가? ㅋㅋ 나도 TV수신카드가 둘이나 있지만 TV는 잘 안보게 되더라.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가질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제목: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에 문제...

아무리 파산상태라고하더라도 자동차를 두대나 갖고있으면서 기초생활대상자라니...그리고 그숫자가 무려1만1931명이라니...제도의허점을이용한 어이없는행정실태다. 하나는 영업용이고 하나는자가용이란뜻인데,장애인이나도 차한대없고걸어다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이 정말방만하네요. 진짜필요한사람은제외되고 이런사람들이 타먹고있으니...정말로ㅡㅡ

제목: 오픈 프라이머리 불법에 대해...

정치인들은 진정 민주주의 대의를 잊었는가?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진정 올바른 민주주의인지 정말로 모르고 그런 소릴 하는가? 직접민주정치는 태고에 인류의 체제가 생길 때부터 사용돼 왔던 전통적인 방식이고 가장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진 방법이다. 그런걸 가지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가증스런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제목: 천리안, 똑같은 뉴스도배, 이래도 되는가?

방금전 천리안 뉴스코너의 정치섹션을 보았더니만 연합뉴스에서 올린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들이 섹션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천리안 뉴스가 아무리 공짜라

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자들이 뉴스 DB에 기사를 넣으면 천리안에서 제휴신문사 기사들을 모두 가져와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댓글을 함들게 다는 상황에서 댓글만도 못한 '기사 게시물의 도배'가 뉴스 섹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거꾸로 되도 한참 거꾸로 된게 아닌지...

이걸 쓰고 있는 동안 많이 정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진만 바꾼 똑같은 제목과 내용의 기사들이 보이고 있네요. 천리안에선 삭제목록을 만들어서 게시물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기사를 배치할 권한은 있으면서 올라와선 안되는 기사를 방치한다는건 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_ _

제목: 천리안 핵실험 관련 댓글

어떤 미친놈(년)이 쓴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두 눈뜨고 못봐주겠구먼. 꼭 전쟁을 조장하는 기사인것처럼 보이는군. 천리안은 즉시 이 기사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이런 기사는 기자가 쓴 기사라고 볼 수가 없다. 공적의무감이 결여된 저급기사라고밖에...

제목: 파이낸셜 기자 전쟁조장 기사 댓글...

이런 언론이 있는한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도 싸다. 그래 니네 뜻대로 가봐라 그렇게 애길해도 계속 불을 질러? 참 나라 말아먹을 언론과 기자들이로세... _ _

천리안 담당자님, 이거 제가 지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핵이 있는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은 안 봐도 훤히하다?" 오늘같은 시국에 이게 뉴스에 올라올 기삽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뭐요? 73%가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경책 지지? 그럼 그 73%가 총대메고 핵 막으라고 해보세요. 핵 막지도 못할뿐더러 참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제목: 한국의 인내심과 동북아 핵균형의 상실...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했다고 공언했고 구체적인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집요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상대로한 자위책을 강조하며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체제를 공공히 수호하며 만일에도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공격을 철저하게 봉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동북아 핵균형을 깨트린 이상 참을성 있게 북측을 지원해온 한국으로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고 현재 북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북한체제가 이용하는 '민족간의 협력'이란 있을 수 없고 이유야 어쨌든 주변국들간의 골만 깊어졌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개성공단에 입주한 협력업체들은 이미 사업을 시작한 이상 계속 북한 당국과 접촉해 나가면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여기서 주변국이란 일본을 지칭한다)의 입장과 행동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 핵무기 폐기를 지지하고 군축을 지지하지만 북한이 이미 그것을 깨트렸고 일본마저도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 없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와 협력하여 북한의 핵무기에 차분하게 대응해 간다면 분명 해답은 있을 거라고 본다. 만약 북한이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반면 우리와 일본은 핵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로서도 북측에 일방적인 원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오만한 핵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북한을 국제사회에 이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희망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38선 지뢰제거 같은 대북사업을 남북으로 일원화해

출구를 만들어주면 북한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심껏 인내해온 우리 정부를 배반하고 북한 당국이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있지만 정작 북한을 달랠 당사자는 다름아닌 같은 민족의 대한민국 정부다. 이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차분하고 심도있게 대처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거라고 본다.

제목: 공적언론은 보도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방금전 천리안 헤드라인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지 그 일면을 정확하게 볼수가 있었다. 또한 그런 뉴스를 편집하여 메인에 보여주는 천리안의 편집진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본다. 히트수에만 골몰하여 그 기사내용에 관계된 회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시국에 이 기사의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채 마치 금강산 사업이 금방이라도 절단날것 마냥 보도하는 언론과 포탈의 행태에 정말 치가 떨리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호전될수 있나 노심초사하며 힘들게 글을 작성해 나도한마디 같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이런 언론들의 재뿌리기에 맥빠지며 다시 이런 글을 써야하는 기막힌 현실에 정말 분개를 금할 수 없다. 언론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적의무감을 다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기사를 작성하기 이전에 네티즌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용자들은 해당 기사를 읽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등등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사를 쓰길 당부당부 드린다. 그대들이 진정 양식있는 기자들이라면 본인의 이 말이 소 귀의 경읽기로 밖에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말에 빠가 있으면 그걸 새겨 듣기 바란다. 옳은 얘기에 거부감을 갖는 기자라면 그것이 바로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뜻 아닐까?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제목: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냄비근성

북한이 진정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요? 이렇게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까지 만들며 악을 쓰는데... 화해와 협력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전 통일이고 뭐고 38선이나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게 일격을 가한다? 참으로 속내를 감추는 한심한 소릴 하시는군요. 참으로 감상적이십니다. 남과 북은 분명 한민족이지만 지금은 엄연히 두 개의 체제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화해와 협력의 과정에 좀 더 신경써 보자구요. ^^ 우리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며 피를 흘려서는 절대 안되지요. 다만 그들을 조종하는 체제 당사자들의 책임감이 무거울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남북은 함께 가야할 한민족이고 두 체제는 그런 한민족의 한을 풀 의무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 퇴진서명 댓글...

노무현 대통령도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한사람의 정치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좌익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 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공공히 생각해 보시길... 그리고 정치행정은 무수히 존재하는 공무원조직과 공무원들을 다루고 구조조정하면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지극히 이해가 엇갈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혁이 후퇴하고 공무원들의 저항과 태업이 빈발하게 되지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수십년부터 일해왔던 전형적인 보수권 인사들이 공직계를 대부분 채우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일이 지나면 조금씩 개선이 되겠지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더디고 잘 안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제목: 언론의 여론조사 제각각인 이유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내막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수구보수세력의 교활함이 잘

드러나있는 대목이네요. 있잖아요 그거 수질검사에서도 염소의 가중치를 낮추고 세균의 가중치를 높이면 약수물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수돗물은 적합 판정이 나온다는 사실을...
^^
그거나 이거나 매한가지란 생각이 드네요. 비유가 약간 그럴지만 사실인걸 어떡해요?

제목: 노무현 찬양과 씹기

한나라당이 친미성향이라고 해서 노무현이 반미성향을 지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도 때에 따라서는 친미일 수 있고 때론 반미를 외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게 한미FTA죠. 요새 한나라당이 차지한 지자체가 들어서면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긴거 아시나요 여러분? 예전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과 얘기하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해 줬는데 지금은 일단 다 접수하고나선 나중에 일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처리는 고사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게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더군요. 또 한번 전환 해야 슬슬 행동에 들어가려나 봅니다. 태극기 같은건 칼같이 달고 수거해 가대요? 태극기 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민원인들의 민원을 처리하는게 더 급선무가 아닐지...

제목: 정신병원 환자 장시간 강박 사망

정신병의 입원치료는 초기에 재발이 발생했을시 1주일에서 2주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환자의 병력과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한달가까이 되는 장시간의 입원치료는 오히려 환자에게 나쁜 정신적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재발이 반복될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 만성질환자는 그래서 더오래 입원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약물복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따금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환자가 있어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몰래 약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도 한다.

제목: 누리꾼 용어 사용금지 부탁드립니다.

다분히 저속하게 들리는 '누리꾼' 용어 사용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네티즌'이란 용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자꾸 방송들이 '누리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껄스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협회에서 '네티즌' 대신 '누리꾼'이란 용어를 쓰자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국민들을 싸잡아 '꾼'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공적언론의 보도로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일이 있어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국민을 평가절하하는 방송을 어떤 이가 곱게 볼 것이며 그런 방송을 시청하겠습니까? 저의 충고를 수리하시어 SBS 방송의 발전에 저해가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럼...

제목: 한러 정상 북핵사태 대화를 통한 해결...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북핵사태에 대한 대화채널이 한계가 있음을 어느정도 깨달아야 할때라고 본다. UN제재에 같이 적극 참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UN제재를 적극 수용하되 북미간의 대화가 조율되지 않으면 일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핵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미국만을 바라보고 체제를 보장받길 원하는 반면 6자 주변국들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동북아 핵질서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가는 바보같은 짓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에 대한 UN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남북간 이뤄지는 대북협력사업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평화구축을 위한 경제교류의 일환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면 북한도 극심한 경제난을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남북간 긴장도 해소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제목: 공공노조 단체교섭

누가 사측이고 누가 노측인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 공공노사란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공공노조를 앞다퉈 만들기 앞서 국민을 위한 자구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계제다. 자기 욕심들만 채우고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암적인 존재와 뭐가 다를까?

제목: 총소리가 무섭지 않다니...

총소리 한번 들어봐라. 엄청 무섭다. 근데도 무섭지 않다니.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쟁은 그래서 무서운 거다. 사람 죽고 포탄 떨어지고 포탄 소리는 잘못하면 고막 찢어진다. 핵전쟁은 한마디로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 신체적 후유증도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중요한거다.

제목: 정부 단체교섭팀 신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 공공노사란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단체'란 표현을 썼는데 정부는 이런 공공노조를 앞다퉈 만들기 앞서 국민을 위한 자구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계제다. 과연 공공노조에서 누가 사측이고 누가 노측인가? 대답좀 해주세요~~~

제목: 한국형 복지모델 성공조건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장애가 있음으로해서 소득양극화가 생기고 그로인해 저출산이 이어지며 그게 나중에 고령화로 끝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 한채 쓸데없는 명분만을 쌓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왜 장애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 잡을 생각은 안하고 비전2030이라며 세금 더 거둘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는다. 밑에 어느 분이 우익좌익 하며 세금을 낮춰줄 정치인이 있는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누가 돼도 자신이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이상 세금 더 거뒀지 낮추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거둬 공무원들 월급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특히 소외 계층의 피부에 와닿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점이다. 허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게 불신을 키우는 씨앗이다.

제목: 제네릭의약품 품질 신뢰성 높이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 병원에 전할해서 내가 먹는 약이 복제약인지 오리지널약인지, 또 약효에 대해서 물어보면 병원에선 주는대로 먹으면 된다는 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들은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단순히 복제약이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값싸게 보급하는 싸구려 약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의 건강이 병원과 건강보험의 수익에 저당잡힌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케이스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일류대병원 의사들도 면담시 환자들에게 어떠한 의학정보도 제시해주지 않는 그런 의료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환자본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미리 알려주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를 또한 만들어 주는 것이 병원이나 공단, 또는 식약청 관계자들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목: 여성계 "영화·언론계 보육시설 지원" 요청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도 보육시설이 없어서 친정어머니나 유치원, 육아시설에 맡기는 형편인데 특수계층에 있는 영화와 언론인들이 문화부장관과 모임을 갖고 보육시설을 주문한다는건 약간의 집단이기적인 냄새가 풍기네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제목: 금강산 사업 복핵 돈줄대기

비록 핵문제로 금강산 사업이 북으로 흘러가는 돈줄이다란 의심을 받고 있지만 대북사업이란 큰 줄기로 봤을때 남북협력에 물꼬를 텄던 의미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UN 제재는 가하되 남북협력사업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제목: 오만한 북한정부는 들어라.

아래는 오늘 낮12시에 방송됐던 MBC뉴스의 기사내용이다.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 체제 당사자들의 이중성과 배은망덕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떠들고 나서는 정작 ABC기자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뻔뻔한 이중성과 협박, 정말 그 체제 당국자들의 부도덕성과 교활함에 년절머리가 난다. 지금까지 남한이 북측에게 남북협력기금에서 온갖 비료 및 식량, 시멘트, 전기 등 수조원에 달하는 대북물자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북한 장성이 했다는 것은 남측을 민족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지극히 전략적이고 이용가치가 있는 이웃국가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본 필자는 북한의 불량한 대남정책에 분명하게 분노하는 바이며 이는 차후에 있는 UN제재 및 남북협력사업에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UN제재를 통해서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북한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어선 아니되며 상기와 같은 인식이 깔려있는 북한당국자들에게 어떠한 물자도 일방적으로 지원되어선 아니된다고 본다. 이젠 금강산사업도 철저한 수익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을 따져서 존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개성공단 사업은 협력사업의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에 북한이 남측에게 어떠한 핵도발의 위협이나 발언으로 경거망동을 한다면 남측도 그에 상응하는 핵핵우산이나 자체 핵개발로써 그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북측 장성이 전쟁이 한반도에서 날 거라고 언급한 이상 핵우산이 불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핵개발에 남측도 발빠르게 착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핵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핵억지력에 문제가 생긴다.

모든 불행의 씨앗은 체제당국자들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서 비롯된다. 언론의 책임이 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말이다. 이젠 남측도 죽음을 불사하고 북측의 오만한 도발적 언행에 일대일 대응해야 하며 전쟁이 핵이든 무엇이든 상호억지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군사력 균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체제당사자들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앞으로 경거망동을 삼가고 주변국들의 심사를 건드리는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는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북이 핵을 만약 남측에 사용한다면 북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점 명심하길 바란다.

=====

"굴복 강요시 전쟁"

2006.10.20

● 앵커 :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북한군 장성이 밝혔습니다.
굴복을 강요하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진숙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리찬복 북한군 상장은 북한에서 취재중인 A B C 기자에게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굴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 : 리찬복 상장은 이어서 어디서 전쟁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 상장은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는 말을 중단해 달라면서 이는 북한국민 모두가 부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즉각반응을 보였습니다.

● 기자 : 스노우 대변인은 이어서 지역이 전쟁 직전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제재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간 말의 전쟁도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공방과 함께 북한 정권교체론까지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 B C 뉴스 이진숙입니다.

[세계][뉴스투데이]이진숙 특파원

제목: 대선 관련 여론 조사

이런걸 내가 써야 하나? 천리안 메인페이지 제목 뭔가 잘못된것 같네요. 우리 공정하게 보도합시다. 여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두 눈뜨고 불공정보도 못봐줍니다. 이젠 저도 더이상 선거관련보도에 대해 왈가왈부 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천리안에서 까대도 말한마디 못하는 여당도 한심하고... 이젠 지쳤다. _ _

제목: 이번 요금 인상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가 철도를 이용하면서 철도공사의 요금인상을 평소에 예의주시하였습니다만 몇년사이 요금의 엄청난 오름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철도공사가 장애인할인이 책정되어 있다고 한들 우리나라 전체국민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렇게 적자가 많다고 요란을 떨면서 얼마전에는 철도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에게 무료승차권을 나눠줬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철도공사의 요금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으며 회계상의 적자도 곧이곧대로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180만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등포에서 조치원까지의 일반운임이 6700원으로 과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요금인상이 11% 가까이 이뤄질 수 있으며 그 타당성에 관한 증명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열차 한대당 몇량의 객실이 있으며 거기에 만차가 되었을때 일반인과 장애인의 객석을 따져서 매출액을 산출하여 운송원가와 비교하여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나고 요금인상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산출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장애인 승객이 많다고 친들 얼마나 많겠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운임이 형성된 마당에 지나치게 잦은 인상에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한 높은 폭의 인상률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이번 정책은 정말로 전국민의 주거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갈급했던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홈페이지 하나 변변히 없는 아파트가 많았고 기존의 홈페이지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선 주민들의 참여가 홈페이지의 활성화로 이어지는걸 꺼려해서 작은 홈페이지 하나 변변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번 정책이 제정되어 공포되면 주민들의 홈페이지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내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홈페이지 상에서나마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등 공동주택문화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하리라 보여 집니다. 꼭 상기의 내용대로 추진되어 온 국민이 제대로 만들어진 정책의 혜택을 모두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FTA 체결시 유의사항

내가 한미 FTA에서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야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기업 하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해왔듯이 이메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스팸메일들을 읽어보노라면 외국기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철저한 소비자보호 대책이 주문되지 않은 상황에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그 많은 반대론자들이 역설하는 '위험한 체결'이 될지도 모른다. 이같은 점을 명심하고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검하며 협상에 임한다면 분명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를 위한 FTA가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FTA, 협상은 하되 준비는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제목: 오존층 회복세 뚜렷?

이건 좀 자료가 잘못된 듯 하네요. 제가 오늘도 관악산 정상엘 다녀왔습니다만 서울남산과 북한산 정상을 비롯해 서울하늘 전체가 흑황색 띠로 검게 둘러진 전형적인 스모그현상을 보았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온실가스가 하늘위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최근들어 자외선 지수가 꾸준히 올라간 것도 사실이구요. 이젠 눈가리고 아웅식의 통계나 행정보단 주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할 때입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 차도옆 인도는 온갖 매연들로 차마 걸터다니기 힘들 정도로 매연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전엔 서울시에서 이런 말이 무색하게 걷기운동을 펼쳤었지요. 이젠 본말이 전도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최근들어서까지 경유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온실가스가 줄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듯 하네요. 대기오염문제 이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에 국사 채택?

제 생각엔 국사보단 전 세계적으로 국사를 바라보는 세계사를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사만 배우면 우리나라만 이해할 수 있지만 세계사를 배우면 세계 각국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시대에 더 적합한 공무원을 양성할 수가 있지요.

제목: 2006년도 정신건강축제 개최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어느 한쪽이 정신장애(정신분열증)를 겪을때 다른 한쪽도 정신장애를 일으킬 확률은 50%란 얘기를 어디서 들은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 신체적 요인 50%와 외부의 환경적 요인 50%가 작용한다고 설명할수 있겠죠. 이 사회의 정신장애자들은 어떠한 장애보다 이기기 어려운 치명적인 정신적 불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그렇게 만든 외부적 환경과 목숨을 걸고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또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도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도전은 위대한 겁니다.